

## 학생회선거 내일(12일)부터 3일간

### 총학생회 선거유세 '썰링' ... 중선위, 대책회의 소집



지난 5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총학생회 선거 1차유세가 진행됐다.

학생회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저조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03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 ▶관련기사 6, 7면(주제기획)

지난 5일 제35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출마한 유영빈(경영4)·이상현

(야간경영3) 후보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1차 유세를 진행했다. 이날은 학생들에게 후보자들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첫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세를 지켜본 학생들은 2, 30명에 불과해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나타냈다.

김진성 기자

유세에 나선 이상현 부 후보는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현재 학생회 고립은 집행부 부족 등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무관심에도 이유가 있다며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학생회는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한 e-2% 참정단 등을 통해 열린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영빈 정 후보는 현행 학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선되면 학부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교에 맞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농민, 한총련 합법화 등 사회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유세는 교육시장 개방, 한총련 간부의 수배생활을 그린 연극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지난주 같은 시기 진행된 단과대 학생회 후보 유세 역시 총학생회 선거 유세와 마찬가지로 '썰링' 양상을 보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장=정석중·수교4, 이하 중선위)는 지난 7일 선거 홍보 활성화에 대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와 관련해 중선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 시행세칙 상 투표율이 50% 이하일 경우 선거는 무산된다"며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총학생회 후보자 2차 유세는 오늘(11일) 오후 5시 동극관 앞 통일광장에서 열린다. 대학부의

dmz@dongguk.edu

## '맥빠진' 총장선거 유세

### 개별 질의·응답 방식 정책차별화 어려워

#### 총장선거 유세 평가

제15대 총장후보 추천자 합동유세가 애초 기대와 달리 형식적인 질의·응답에 그쳐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유세는 각 구성원들이 "협의 통해 총장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성사시킨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질의자로 나선 박경태(사회학 석사과정)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국장 "교수회 선관위가 유세 하루 전 진행방식을 단순 질의·응답으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말해 주제 동안 사전 합의없이 유세방식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일호(경제학) 교수 회 총무는 "교수회 규정에 따라 직원·학생에게 질의·응답의 기회를 준 것"이며 "오랜 기간 친분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이 서로 열

골을 뽐내며 대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별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교수회 선관위가 유권자 중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후보자 중심의 유세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정책의 차별성을 유도해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책토론회의 진정한 의미"라며 개별 질의·응답의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이날 유세는 정책집에 추상적으로 제시된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무너뜨리며 '수박 겉 핥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직원측 질의자로 나선 김규직원·학생에게 질의·응답의 기회를 할 수 없어 답변이 불충분해 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 이날 후보자들의 답변은 모호할 뿐 아니라 질문을 빠뜨리고 대답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실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질문 또한 이미 정책집에 제시된 공약을 되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총장선거 후보자 유세는 정책선거 중심으로 가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성원간 합의되지 않은 진행방식과 참가자들의 미숙함으로 인해 정책대결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앞으로 총장선거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원만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의체제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2면(보도)

조슬기 기자

choi55@dongguk.edu

##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 개최

### '원효전서 영역 ... 의미와 번역상의 문제점'

본교와 스토니 브룩 뉴욕주립대학교(이하 뉴욕주립대)가 설립한 국제원효학회(회장=송석구·철학, 박성배·뉴욕주립대 한국학)가 내일부터 이틀간 본교 예술극장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2회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국제원효학회가 지난 5년간 추진해왔던 원효전서 영역본의 간행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주요 번역자들과 원효학 관련 학자들이 참석, '원효전서 영역, 지구촌 시대적 의미와 번역상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첫째날은 △대승기신론소에 나타난 원효의 신앙체계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본 한국불교 문헌의 '주석' 장르를 각각 박성배 교수와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가 주제발표하며, 둘째날은 △원효전서 영역의 문제점 △원효전서 출판 △원효학 연구의 미래에 대해 토론한다.

이와 관련해 학회 한국본부 간사

김용표(불교학) 교수는 "이번 학술회의는 원효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원효전서 영역화 작업을 추진해온 그동안의 연구활동을 검토하는 자리인 동시에 원효전서 영역의 지구촌 시대적 의미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만불봉안 불사 봉불식 오는 13일 대각전

만불봉안 불사 봉불식이 오는 13일 오전 9시 대각전에서 열린다.

'깨달음의 법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봉불식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의 불상전안식 법주를 시작으로 △삼귀의 △찬불가 △발전기금 경과보고 △총장 식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본교에 발전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한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어머니의 외침 ...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농성중인 의문사 유가족 30여 명이 지난 7일 의문사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중 한 유가족이 "권한강화 없는 법개정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위증처벌 등을 호소하고 있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 박영석 동문 남극최고봉 도전

### 빈슨메시프(4,897m) 21일부터 등장

'7대륙 최고봉·3극점 정복'에 도전하고 있는 박영석(체교91졸) 동문은 지난 8월 유럽 최고봉 엘브르즈(5,642m)에 이어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메시프(4,897m) 등정에 나섰다. 박 동문은 내일 출국하며 오는

21일부터 등반을 시작한다.

이번 등반에 성공할 경우 박 동문은 남·북 극점 등정만을 남겨놓게 돼 산악그랜드슬램(히말리아 14좌 등 완등, 7대륙 최고봉·3극점 정복) 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다.

## 현각스님 초청 강연 13일 중강당

### '만행 - 허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저자

현각스님 초청 강연회가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알기쉬운 불교따라잡기'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참다운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현각스님은 미국 뉴저지 출신으로 허버드대학원에서 종교철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92년 출가해 현재 화계사에서 수행 중이다. 저서로는 '만행-허버드에서 화계사까지' 등이 있다.

## 3면 송석구 총장 8년 평가 ③경영분야

## 대학원 9개 학과 신설 불교전문대학원 신청 불허

2003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 조경결과가 발표됐다.

기획인사처(처장=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심사팀은 지난 8월 교육부에 대학원 정원 증가와 학과신설을 신청한 결과 9개 학과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전문대학원은 불허 판정을 받았다.

신설된 학과는 서울캠 일반대학원=△유아교육학과 석·박사 과정 △관광호텔경영학과 박사과정 △수학교육과 석·박사과정, 특수대학원=△문화예술대학원 예술치료학과 △극작정비대학원 IT-비즈니스학과, 경주캠퍼스 일반대학원=△조경학과 박사과정 △생명공학과 석사과정이다.

## 하권의 병원장내정자 사퇴

본교 의과·한 의과 대학 부속 불교병원 병원장으로 내정돼 있던 하권익(의학) 교수가 지난 11일 사퇴했다. 하 교수는 지난 5월 31일 병원장으로 내정돼 지난 9월 1일 교수로 재출했다.

## 입시정보 홈페이지 개설

본교 입시정보 홈페이지가 지난 5일 개설됐다.

접속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를 통해 가능하며 △입학정보 △논술기출문제와 모범답안 △논술첨삭서비스와 재학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보리소**

요즘 세간의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현역 군인이 은행을 털었습니다. 검찰이 사담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선량이라는 정치인 무리들이 권력의 이동 꾀에 말을 바꾸고 의리를 버립니다. 돈벌이가 돼서 그런 것인지 대통령의 아들조차 불법에 개입돼 실형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근본적으로 다스려야 할 터..." 말들은 많은데 낯이 새면 또 다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실이 상상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불교계 한 행사에서 안지 20년 됐지만 시ết 말로 약발 없다는 이유로 찾지 않았던 한 스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명함을 드리고 의례적인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송합니다. 바쁘다보니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늘 단문의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남 부장 참회를 아는가?" 첫 문장에 스님 화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참회하고 있다요. 그런데 참회한다는 마음속에 버림이

없고 집착만이 피어오른다요. 아직 덜됐다 보오. 보고 싶지만 한 3년 떠났다 와야 할 것 같소." 급히 수소문해 스님을 찾았으나 스님은 이미 떠났습니다. 갈망하나 메고 넓은 바다 넘어간다면 떠났다고 합니다. 조만간 찾아뵙겠다는 말을 드리고 다음날 현실에 묻혀 버렸던 내가 너무 미웠습니다.

평소 답답하면 억지 부리던 한 선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 왈, "네가 참회를 알아? 반성만 할 줄 알지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있지? 그 반성은 자기 합리화일 뿐

이야. 누가 그러더라...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참(懺)'이라 하고 앞으로 다가를 잘못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회(悔)'라고 한다. 그리고 허물을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허물이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되니 이것이 참회의 길이라고."

오막새에는 참회가 없고 극락정토에는 참회가 많다 던데... 이 시대 참회는 하루에 몇 건이나 될까?

남 선 불교방송 보도국 사회문화부장

**참회를 아는가?**

**3면 송석구 총장 8년 평가 ③경영분야**

발전기금 060-700-0119

## 투표는 일년치 '보약'입니다

오는 12일(화), 13일, 14일은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일입니다. 1년을 위해 1분만 투자하십시오. 권리를 실천한 당신의 대학생활이 든든해집니다.

**동대신문사**

### 지면안내

**4면 대선후보 서면인사청문회**

본교생 297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에게 궁금한 점을 설문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들을 서면 인터뷰했다.

**6, 7면 학생회 선거**

선거 분위기를 살펴보고 입후보자 인터뷰를 통해 공약을 알아본다.

**11면 대학생 소비문화**

설문조사를 통해 본교 학생들의 소비문화를 알아보았다.

총장후보 선거 합동유세 지상중계



- ① 정책자료집에 나타난 후보자 공약분석
- ② 정책연설·질의응답 지상중계
- ③ 주요쟁점 서면인터뷰



기호 1번 정병조

▲정책연설=본교는 그동안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 온 명문사학이었으나 오늘날 대학평가에서 대부분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수·직원·학생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불교계 인사·재단 이사들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재단과의 관계개선에 힘쓰겠다.

공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산캠퍼스에 교양학부를 신설해 2004년 신입생 전원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발전기금 700억 모금, 총장 중간평가 등을 실시하겠다.

- 발전기금 700억의 구체적 모금 계획.  
= 기부채납, 외부지원금 등의 방법으로 약 270억을 모금하면 순수 모금액은 430억이다. 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총장권한 위임계획과 예산집행 개선의지.  
= 행정은 팀워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총장을 교육·행정·경주·의료부총장제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이양해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묻도록 하겠다. 또한 재단과 협의해 권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 지하주차장 재원 조성 계획.  
= 서울시 주차차와 논의한 결과 대운동장 지하 3층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약 5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며 골조비 등 전체적인 공사비가 약 1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사용되는 비용은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을 것이다.

- 총장 중간평가제의 의미.  
= 임기 2년 후 공약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직원·교수·학생 모두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 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총장직을 그만 둘 용의가 있다.



기호 2번 홍치유

▲정책연설=이번 선거가 총장후보 추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대학으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부실화된 교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학과별 모집 80%, 학부모집 20%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

또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봉급을 인상시키고, 일산캠퍼스에 교양학부를 신설해 1학년 전체를 생활관에 입주시켜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밖에 불교병원의 순차적 개원, 지하주차장 건립과 복지시설 확대, 교직원 주차비 면제 등을 실시할 것이다.

- 병원재원조달 방법과 우선 개원 시기.  
= 불교병원 양·한방 협진 200병상을 우선 개원하고 순차적으로 전병상 개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개원시기는 대한병원협회의 실사가 끝나고 의료장비 준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11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일산캠퍼스로 이전할 경우 지방대학화 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 본교는 공간 제약이 많아 더 이상 개발 공간이 없다. 이에 일산캠퍼스로 몇 개 단과대학을 이전하기 보다 생활관·강의동·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고 신입생을 입주시키려는 것이다. 제3캠퍼스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할 생각이다.

- 교수·직원·학생의 복지향상 방안.  
= 적자를 내고있는 의료원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회계와 병원회계를 분리해 재정의 상당부분이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동척철 등 등록금 협상의 학생 참여 방안.  
= 본교 등록금은 타대학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수·직원·학생대표가 대화로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호 3번 홍기삼

▲정책연설=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가 부수적인 것에 의해 압도당해서는 안된다.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만나 학교발전에 대해 토론하며 온기 있고 화목한 대학을 만들도록 하겠다. 또한 전공 필수 부활 등으로 학생의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인문과학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부총장은 실무를 담당해 캠퍼스를 운영하고 총장은 대외적 인사들과 접촉해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교의 특성을 살려 불교 생태학을 발전시켜 학문적 비전을 제시하겠다.

- 대학행정에서 '공개'와 '투명'의 의미와 갈등완화 방법.  
=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행정절차를 공개하고 논외과정도 투명하게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교수와 행정직원으로 구성해 양측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겠다.

- 학문의 특성화 방안과 특성화에서 제외된 학과의 처리방안.  
= 특성화 분야가 개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별도의 기구를 통해 논의되도록 하겠다. 또한 학생이 없어 폐과될 위기에 처한 학과의 경우 연구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존속시키겠다.

- 대학원의 구체적 발전계획  
= 교수와 함께 학생의 집중육성에 노력하겠다. 또한 자매대학과의 해외연수를 확장하고 장학금 수혜를 명문화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학생선발은 학과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 재단전입금 확대방안.  
= 현재 재단의 수익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입금도 미비한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 수익 사업을 권유하고, 의료지원 등 교계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교계분담금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호 4번 조희영

▲정책연설=관련 전공 교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내실화를 위해 교직원 봉급을 인상시키는 등 복지향상에 힘쓰겠다.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학부제는 해당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논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학원은 그동안 학부중심에 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따라서 대학원 발전기금마련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등록금 책정협의회 등 학내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받아들이고 머리를 맞대며 연구하겠다.

- 외부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는 요인과 극복방안.  
= 외부평가는 외형적 발전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본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교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실을 기해 차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방법.  
= 재단의 동의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영역별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발전위는 보직자 중심이 아닌 해당대학 교수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 행정직원 전문화에 대한 복안.  
= 팀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팀제가 제대로 시행하려면 팀원이 재역할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 보직교수의 해택축소와 보직인선 기준은.  
=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보직교수에게 해택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며 따라서 해택을 줄이는 것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보직 교수는 전공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선할 계획이다.

정리=조슬기 기자

한정면담

선택기준

○...지난주 열린 총장후보 추천 입후보자 유세에서 방청객동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었는데, 후보자 한 명의 질의·응답이 끝날 때마다 방청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장시간 진행의 지루함을 못이긴 방청객들로 밝혀졌지만 덕분에 유세장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고 후보자들의 열의도 저하시켰으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왈, "내가 지지하는 총장후보는 짧게 답변하는 사람(!)"

시기상조

○...컴퓨터실습실의 카드식 프린터기는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한정된 공간에 웹프린터기를 들여오느라 카드식 프린터기 일부를 회수해 남아있는 프린터기의 사용횟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이는 여전히 웹프린터기보다 카드식 프린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왈, "프린터기 세대교체 실패분석, 원인은 시기상조!"

주5일 근무

○...지난 주말 컴퓨터 사용을 위해 동국대 5층 실습실을 찾은 학생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는데.

알아보니 관리자가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아 컴퓨터실습실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엄연한 개방시간에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실습실을 폐쇄한 것은 안일한 처사가 아니었는지.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왈, "컴퓨터실 개방여부, 오직 관리자에게 달려있다!?"

불안한 검색

○...요즘 본교 홈페이지 정보검색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종종 황당해 한다는데.

이유인즉 홈페이지의 검색창을 통해 찾은 정보가 링크되지 않아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서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창 정보들은 이전 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왈, "동국대 홈페이지 정보검색, 서버 잃은 인터넷 속 미야(!)"

실전창업강좌 개최 오는 14일 다향관 세미나실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취업지원팀이 '예비졸업생을 위한 실전창업강좌'를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과 창업지원제도에 대해 강의한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팀 박정훈 팀장은 "예비졸업생들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창업가 정신을 심어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 원흥대동·학술제 개최 동국기계전·게임대회 등

공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대행=최재혁·전자공4)가 '원흥대동·학술제'를 오늘부터 5일간 개최한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대동제는 △게임대회(스타크래프트·워크래프트Ⅲ) △축구대회 △일일호프를 진행한다. 학술제는 오는 14일부터 이틀 간 △화학공학과=화공프로세스전·원흥관2층 △기계공학과=동국기계전·원흥관1층이며, 전자공학과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시법 위반 연행 학생 석방 10만원 벌금·1년 집행유예

지난 1일 연행된 △생자대 학생회장 신용화(생명자원산업융합3) △사범대 부학생회장 신승원(수교4) △김은주(국교4)가 풀려났다. △김은주·신승원=벌금 10만원형 △신용화=집행유예 1년형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의문사법 개정·강화를 위한 자전거 투여단'에 참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행됐다.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합동 간담회

연구·복지개선 위한 방안 제시

신·남궁 조 "학과별 도서구입비 지원"- 배·유 조 "전용복사실 신설"

대학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지용·불교학 석사과정, 이하 선거관리)가 지난 6일 대학원 총학생회 세미나실 1에서 후보자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지용 선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기호 1번=신병삼(불교학 박사과정)·남궁선(불교학 박사과정), 기호 2번=배근호(정치학 석사과정)·유철주(사회학 석사과정) 후보가 각각 제시한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측 모두 계획한 연구소 방문할 절차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방음창 설치가 연구실을 사용하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편향된 사업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두 후보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형평성을 위해 연구실을 사용하지 않는 이·공계 학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계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질의응답에서 신·남궁



대학원 총학생회 후보자 합동 간담회가 지난 6일 열렸다.

후보는 각 학과별 전문도서 구입비 지원 공약에 대해 "학생회비를 이용, 도서 구입비 재원을 마련해 학생수가 많은 학과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대학원과 학술교류 증대 공약에 대한 질문에 "타 대학 학술행사 정보 제시 등 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유 후보는 복사실 신설 공약에 대한 질문에 "예술대 학생회와

논의한 후 문화관과 학술관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사실을 만들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겨울방학 동안 모든 학생회 사업을 기획해 학기초인 3, 4월 중 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원우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는 오늘(11일)부터 3일간 △90주년기념 학술관 △동국관 M동 △과학관 △원흥관에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조은교수 '역고소' 무혐의 판정

"증거 불충분"... M양은 소송 진행 중

사회학과 K교수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조은(사회학)교수가 지난 6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K교수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M양을 고소한 사건은 4천원이며 현재 '혐의없음' 판정을 받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으며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또한 M양이 성추행 혐의로 K교수를 형사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으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언어연구교육원 모의토익 오늘부터 5일간 접수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어영문학)은 오는 16일 해화관 Lab실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의토익을 시행한다.

본교 재학생 중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모의토익의 비용은 4천원이며 현재 언어연구교육원 가을특강을 수강하는 학생은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응시를 원하는 학생은 오늘(11일)부터 15일까지 언어연구교육원에 신청하면 된다.

농구부, 전국체전 경북대표 출전

오늘 제주 구좌체육관서 단국대와 첫 경기

본교 농구부(감독=최성오)가 오늘(11일)부터 5일간 '제83회 제주 전국 체육대회'에 경북대표로 출전한다.

11개 시·도에서 각 1팀씩 출전하는 이번 대회 농구 종목은 제주 시 구좌체육관에서 토너먼트 방식

으로 진행된다. 본교는 오늘 오후 5시 충남대표인 단국대학교와 첫 경기를 갖는다.

제주 전국 체육대회는 지난 9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개막했으며 농구, 수영, 육상을 포함한 40개 종목이 펼쳐진다.

전화상담 도우미(아르바이트) 모집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가. 모집분야 : 전화상담 도우미 (신입생 인터넷 원서접수관련 상담)
    - 나. 지원자격 : 본교 재학(휴학포함) 중인 여학생
  - 모집인원**
    - 가. 주간조 (15명) : 07:00 ~ 15:00 (8시간 근무, 3㉮1조, A1~A5조 5개조)
    - 나. 야간조 (15명) : 15:00 ~ 22:00 (7시간 근무, 3㉮1조, B1~B5조 5개조)
    - 다. 심야조 (10명) : 22:00 ~ 07:00 (9시간 근무, 2㉮1조, C1~C5조 5개조)
  - 조별 투입계획**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1	2	3	4	5	6	7
주간조		A1	A2	A3	A4	A5	A1
야간조		B1	B2	B3	B4	B5	B1
심야조		C1	C2	C3	C4	C5	C1
	8	9	10	11	12	13	14
주간조	A2	A3,4	A1,5	A2,3,4	A1,2,3,5	A1,2,3,4,5	A4,5
야간조	B2	B3,4	A1,5	B2,3,4	B1,2,3,5	B1,2,3,4,5	B4,5
심야조	C2	C3,4	A1,5	C2,3,4,5	C1,2,3,4,5	C1,2,3,4,5	
  - 근무조건 및 지급수당**
    - 가. 근무기간 : 2002년 12월 2일 ~ 12월 14일 중 상황별 총 5일간 (토, 일요일 포함)
- 나. 근무조건 : 수당지급 및 식사, 간식 제공  
 - 주간조 : 5일 × 8시간 × 4,000 = 160,000원  
 - 야간조 : 5일 × 7시간 × 5,000 = 175,000원  
 - 심야조 : 5일 × 9시간 × 6,000 = 270,000원
5. **전형방법** : 면접전형  
 가. 면접일시 : 2002년 11월 20일(수) 14:00  
 나. 면접장소 : 다향관 2층 세미나실
6. **제출서류**  
 - 신청서 : 소정양식 1부(본교 홈페이지 참조)
7.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2002년 11월 11일(월) 09:00 ~ 11월 18일(월) 12:00 (신청인이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첨부하여 접수  
 - 메일주소 : webmaster@dongguk.edu  
 - 메일제목 : 상담도우미 지원서(본인성명)  
 - 문의처 : 동국대학교 정보관리실 (다향관 3층) ☎ 2260-3904
8. **유의사항** : 소정의 예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1월 28일 15:00~17:00)

정 보 관 리 실



- ① 교육분야
- ② 연구분야
- ③ 경영분야
- ④ 재단과의 관계·학내민주화
- ⑤ 간담회·차기 총장에게 바란다.

송석구 총장 8년 평가와 과제

송석구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마무리된다. 지난 8년 교수·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재단에 추천된 송 총장은 8년 동안 불교병원 건립추진, 학부제 도입, 행정조직 개편 등 많은 변화를 주도했다. 본사는 총 5회에 걸쳐 송 총장 재임 8년을 분야별로 평가해 차기 총장에게 넘겨진 과제를 알아본다. 편집자

# '무기력한' 팀제 재검토 필요

## 직원 대상 120명 설문 조사 "팀제 맞는 평가체계 정착 안돼"

'일을 찾고 창조하는 공격적 행정' 취임 초 송석구 총장이 표현한 행정개혁의 상이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교학과 한 직원이 말하는 행정직원의 분위기는 애초 기대와 사뭇 다르다. "대부분 스스로 일을 찾지 못하는 명령을 기다리는 데 익숙해졌다." 행정조직에 팀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진행해온 개혁의 결과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송 총장 재임시절 행정혁신의 핵심은 '팀제 도입이다. 팀 제도가 단순한 조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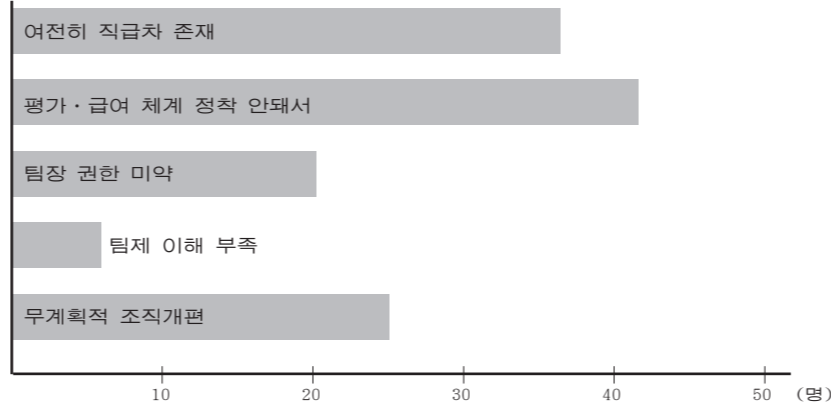
조를 넘어서 직원간 문화, 인사제도, 급여체제의 변화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98년 LG 경영 진단 결과에 따르면 본교는 중간층이 많아 업무속도가 느리고 연구서열 문화로 직원들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장, 과장급 직원들의 결재권을 박탈해 실무직 팀원으로 조정하고 과·부를 통합하여 행정조직을 팀제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팀제 도입 후 3년이 지난 지금, 직접 이를 경험한 행정직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지난 8일 본교 직원 약 50%(서울 79명, 경주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팀제가 취지대로 정착됐느냐는 질문에 '비효율하다' 또는 '배우 미흡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한 직원은 "본래 취지는 팀이 능동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팀제 개편 뒤 개선된 점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한 이가 약 30%로 가장 많았다. '결재라인이 줄어들어 업무가 빨라졌다'는 대답이 약 25%를 차지했으나 이는 계장, 과장 등 결재하는 단계를 줄인 데서 나타난 단순한 효과다. 이처럼 팀제 도입이 애초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직원들은 가장 먼저 팀제를 지원하는 다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

### ■ 팀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 (복수응답)



는다. 98년 경영 진단단의 제안에 따르면, 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직만 팀제로 개편하는 것 뿐 아니라 인사평가제도, 급여체계까지 새롭게 갖추어야 한다. 평가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해야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기관업적평가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 정작 개인별 인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평가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기관업적평가도 시범실시 중인 까닭에 인사나 급여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효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후속제도 도입이 더딘 것은 이를 둘러싼 직원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총무팀의 한 부장은 "학사행정 업무와 입학관리 업무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느냐"며 평가제도 도입에 의문을 던졌다. 대학행정 업무는 평가기준을 세우기 쉬운 일반 기업과 달리 업무내용이 부서마다 판이해 일괄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팀제 도입 초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행정조직에 기업식 팀제 도입이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과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겠는가'에 모아졌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직원내부에 팀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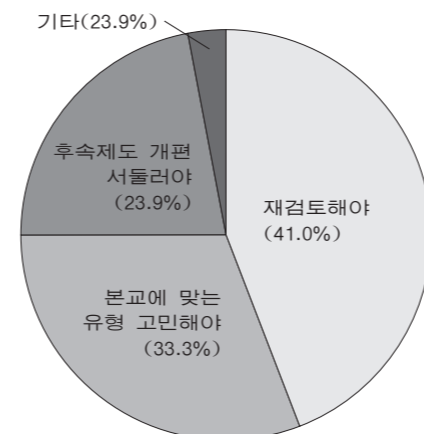
이와 함께 처장이 팀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인사처의 한 직원은 "팀제에서는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처장들이 총장의 의견에 따라 팀장의 제안을 변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수들로 이루어진 처장들이 각 부처를 주체적으로 이끌기보다는 대체로 총장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팀의 작은 정책들도 총장의 의견에 따라 움직였던 셈이다.

한 직원은 "송 총장은 다른 총장보다 추진력이 강해 팀이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스스로 먼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본관이 필요한 팀제를 시행했음에도 오히려 상의하달이 더욱 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앞으로 조직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일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직구조 개편방안을 묻는 질문에 재검토해야한다는 대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팀제를 유지하더라도 본교실정에 맞는 새로운 유형을 찾아야한다는 대답은 33%로 두 번째로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합한 조직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 ■ 향후 팀제 운영에 대한 생각은?



## 사설

### '캠퍼스 정치' 실현하자

대선이 가까워옴에 따라 대학마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대학생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각 대학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대선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대학생 유권자의 투표율은 부끄럽게도 전체 투표율에 크게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부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대학생 중 약 70%에 이르는 60만명임을 감안할 때 부재자 투표소의 설치에 현재 대학생 투표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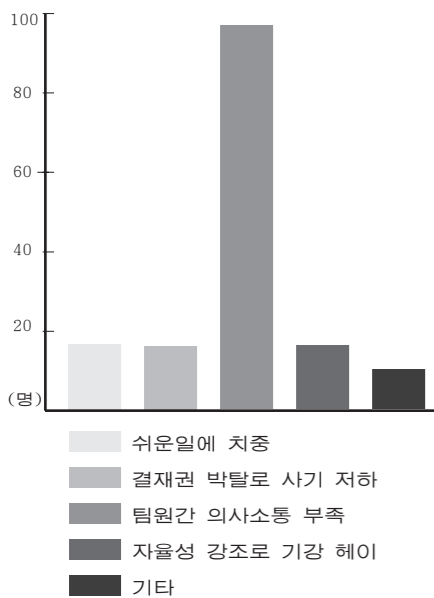
이제까지 대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은 곧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교육정책의 부재, 부실화와 직결됐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올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서 대학교육과 관련한 그렇다할 정책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재자 투표소의 설치에 후보들의 대학생들을 공략한 정책공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재자 투표소의 설치에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유권자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학생들에게 대학 내에서의 투표권 행사는 사회인이 되기 전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크다. 또한 선거를 하나의 축제로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캠퍼스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물론 낙관적 전망만을 하기에는 이른다. 선관위가 예산, 질서유지, 학사일정 등의 문제점을 들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나 부재자가 2천명 미만인 대학은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7%가 대선 투표를 하겠다는 대답을 한 것은 부재자 투표소 설치 시 높은 투표율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선관위가 애초 의도대로 현행 선거법을 유권자 중심으로 해석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교 총학생회도 조만간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대학생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노력이 필요한 때다.

### ■ 팀제 도입 후 드러난 문제점은? (복수응답)



## 경주캠퍼스 운영

### 독자성 확대위한 제도 마련돼야

#### 인사·예산권 서울캠퍼스에 집중

경주캠퍼스는 지난 79년 설립 이래 20여년 동안 지역의 중심대학으로 자리 잡았지만 예산권·인사권 등 자치권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석구 총장의 임기중인 지난 99년 팀제개편과 함께 기획홍보과가 사업기획, 예산편성·집행을 전담하는 기획처로 확대·신설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서울캠퍼스에 있어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송 총장은 94년 제13대 총장후보선거에서 공약으로 '경주캠퍼스 학사운영의 자주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부공약으로 △

#### 단계적으로 자치권 확보해 나가야

내내 있지만 여건이 허락되면 서울캠퍼스에 집중돼 있고 연구처는 신설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문대의 한 교수는 "경주캠퍼스의 인사결정 사안이 서울캠퍼스의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주캠퍼스 최고결정권자인 부총장 역시 지위가 불안정해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해나가는 무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3명의 부총장이 교체되는 등 송 총장 임기 8년동안 경주캠퍼스는 총 6명의 부총장이 교체됐다.

이와 관련 지난 학기 제6대 교수회는 '경주캠퍼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해 "경주캠퍼스의 단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부총장의 호칭을 경주캠퍼스 총장으로 부여

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본교와 같이 지방에 제2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학 중 연세대는 독자성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연세대의 경우 각 캠퍼스와 의료원이 독립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어 독자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임여금으로 시설확충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각 캠퍼스·의료원 부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고정돼 있고, 예·결

산 및 교직원 인사권 독립적으로 보장돼 매년 30억~50억원의 임여금을 시설투자에 활용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가고 있다.

본교는 지난해 중장기 발전계획안인 '동국비전21'에 2007년 경주캠퍼스 독립체제를 추진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경주캠퍼스의 독자성이 확대돼야만 실현 가능한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 이임수 회장은 "독립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독립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주캠퍼스는 본관 및 공대건물의 부재로 발생하는 공간문제 등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주캠퍼스 '스스로' 문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환 기자 sjh10th@mail.dongguk.ac.kr

# 대외적 사업 재원마련 위해 적극적인 모금

## 지속적인 기부자 관리 미흡 불교병원 개원 이후 모금방식 모색해야

### 발전기금 모금

현재 본교에 약정된 발전기금의 액수는 약 601억원, 적립된 액수는 220여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송석구 총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94년 적립된 발전기금이 약 20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액수로는 비약적인 발전이다.

이처럼 본교의 발전기금 액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까닭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불교병원, 제3캠퍼스 건립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송 총장이 발전기금 모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교의 발전기금 모금방식은 기부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부금 유치에 나서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송석구 총장이 발전기금 모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시기는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발족한 96년부터다. 송 총장은 100주년 기념사업회 산하에 발전협력팀을 두고 발전기금 모금 업무를 맡겼지만, 모체가 되는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임시행정조직인 까닭에 기부자 유체에 적극적으로 못했다.

이에 본교는 팀제 전환을 시행한 99년, 발전협력팀을 대외협력처로 확대·개편했다. 한보광(선학) 대외협력처장은 "이로 인해 체계적인 기금 모금과 기부자 관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본교는 다양한 기부방식도 모색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9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인 동문 초청행사 '동국인의 밤'으로, 96년의 경우 하루 동안 총 129여원을 모금했다.

또한 자비의 베풀기 운동, 동국사랑 저금통 등으로 불교계 지원 쪽을 넓혔다. 이와 함께 대학 최초로 도입한 ARS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한 발전기금 모금도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이처럼 송석구 총장 재임기간 동안 진행된 발전기금 사업은 규모의 성장과 방법의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몇몇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기부자 관리기금이 타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돼있다는 점이다. 본교는 기부 총액의 10%를 기부금 관리기금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 내외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발전기금의 사용을 줄이는 것에 일조하지만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서는 미

##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유현우, 부주장 장영길,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p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358, 팩스 (054)770-2057

# 대외적 사업 재원마련 위해 적극적인 모금

## 지속적인 기부자 관리 미흡 불교병원 개원 이후 모금방식 모색해야

### 발전기금 모금

현재 본교에 약정된 발전기금의 액수는 약 601억원, 적립된 액수는 220여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송석구 총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94년 적립된 발전기금이 약 20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액수로는 비약적인 발전이다.

이처럼 본교의 발전기금 액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까닭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불교병원, 제3캠퍼스 건립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송 총장이 발전기금 모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교의 발전기금 모금방식은 기부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부금 유치에 나서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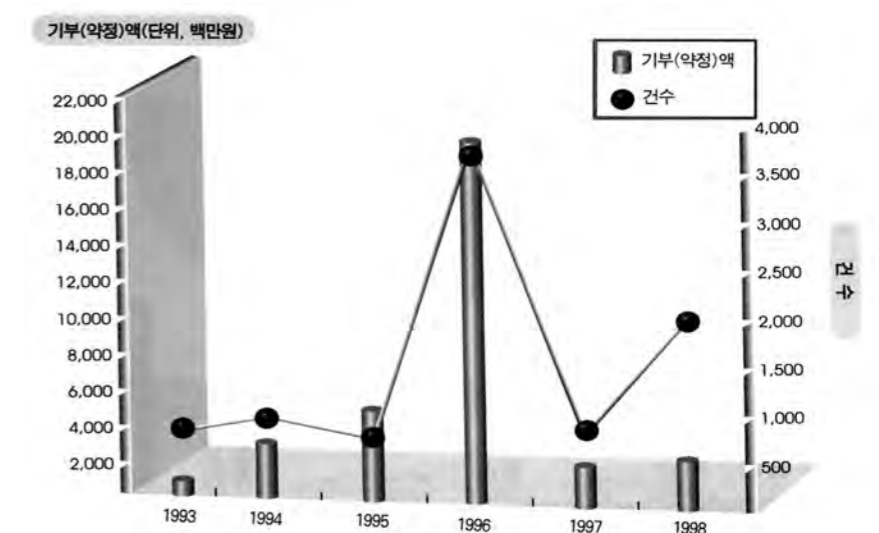
송석구 총장이 발전기금 모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시기는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발족한 96년부터다. 송 총장은 100주년 기념사업회 산하에 발전협력팀을 두고 발전기금 모금 업무를 맡겼지만, 모체가 되는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임시행정조직인 까닭에 기부자 유체에 적극적으로 못했다.

더불어 불교병원 건립 이후의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방안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발전기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불교병원 건립기금이 개원 이후 큰 폭으로 줄 것이 예상돼, 이를 대체할 다른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불교병원 건립기금 중 발전기금과 관련해 얼마전 교수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같은 구성원들의 불신을 막기 위해서는 모금액과 함께 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lyone@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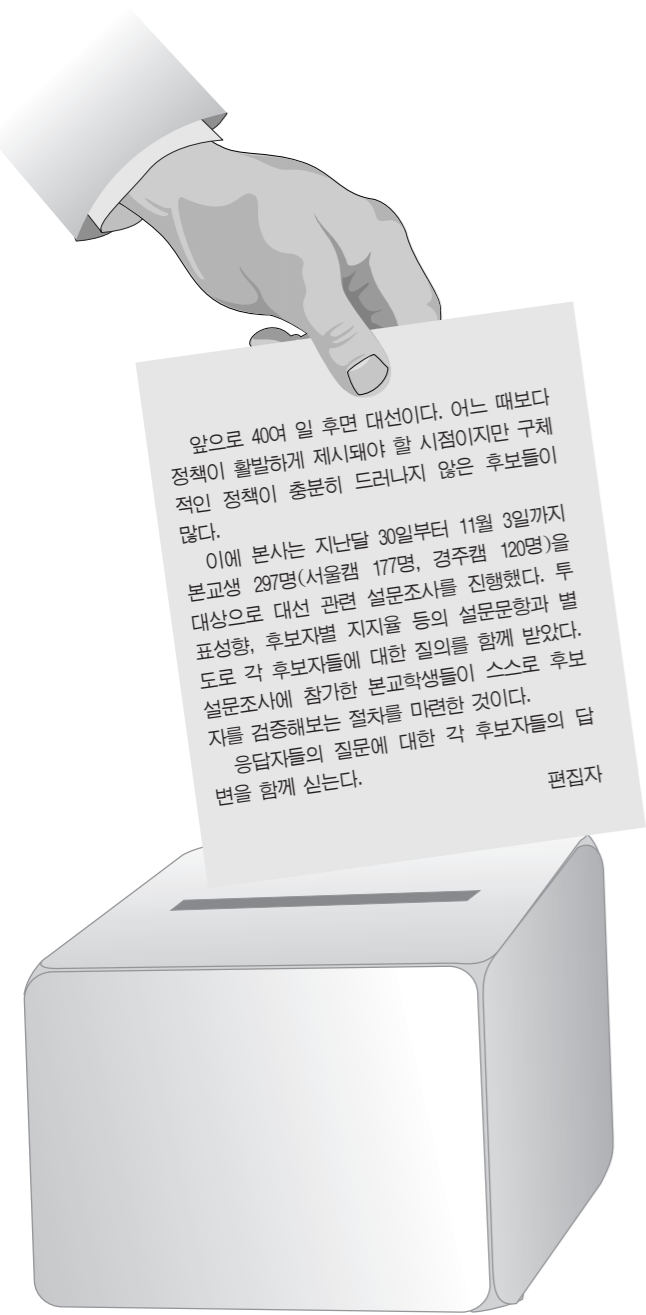
### ■ 연도별 기부(약정)액



2002 대선 관련 설문조사

# 노무현 · 이회창 선두타툼 치열

## 양캠별로 지지도 차이 두드러져 ... “투표하겠다” 71.7%



설문 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후보는 20.5%로 19.9%의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각각 15.8%와 5.1%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캠퍼스별로 살펴보면 후보별 지지율이 판이하게 다르다. 서울캠에서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각각 27.1%와 20.3%로 선두권을 형성한 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이회창 후보는 9%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경주캠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35.8%의 지지율로 1위에 올라 서울캠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무현, 정몽준 후보는 각각 10.8%와 9.2%로 이 후보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캠에서 7.3%의 지지율로 이회창 후보와 호각지세를 이뤘던 권영길 후보도 1.7%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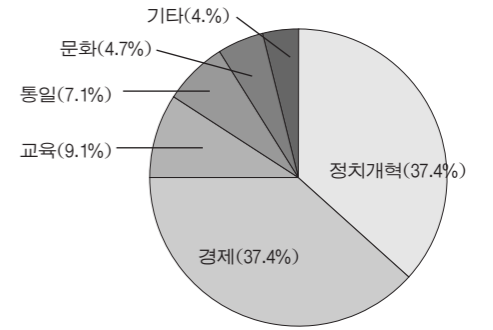
지지 후보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은 경주캠에서 35.8%의 정당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며 제1당의 면모를 과시했

다. 2위인 민주당은 이보다 한참 뒤쳐진 12.5%였다. 이같은 경주캠 학생들의 이회창 후보, 한나라당 선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압도적 1위로 군림하고 있는 영남권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24.9%로 1위를 기록한 서울캠 퍼스에서는 민주당의 약진을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은 15.8%의 정당지지율로 각각 13%와 9.6%의 지지율을 보인 국민통합21과 한나라당을 모두 제치고 2위에 올랐다.

반면 자민련은 서울, 경주 통틀어서 단 한사람의 응답자도 나오지 않아 정당의 존재가 학생들의 인식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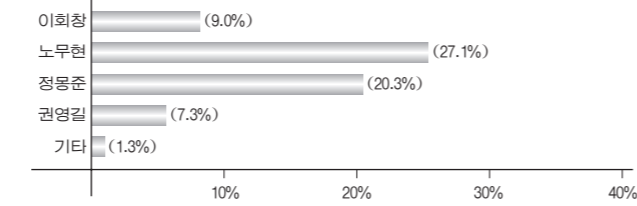


후보들의 정책제시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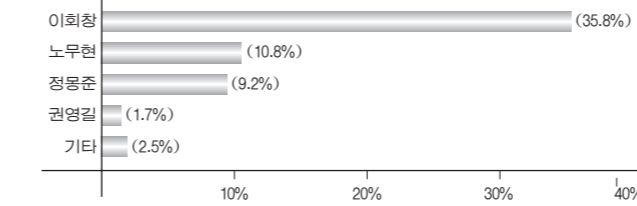
권영길 후보 지지자들의 66.7%가 권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정책제시를 선택했고 노무현,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였다. (노무현 37.7%, 이회창 37.4%)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는 정책제시를 지지이유로 꼽은 이들이 6.4%에 불과한 반면, 이미지 때문에 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76.6%에 달했다. 이는 월드컵 이후 불어닥친 '정풍'이 소속정당이나 정책이 아닌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선정한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조사결과 정치개혁, 경제가 37.4%로 공동 1위에 올랐다. 교육과 통일은 각각 9.1%, 7.1%였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취업난 해결, 지역주의 해소 등이 있었다.

### 대선후보 지지도(서울캠)



### (경주캠)



\* "지지 후보 없다" 제외

사회부 society@dongguk.edu

# 본교생 297인

#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설문응답자들의 각 후보에 대한 질문과 후보들의 답변을 모았다.

## “대학생 지지 신경쓸 터”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회창

- 대학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편인데.

= 대학생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요즘 들어 젊은이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젊은이들과 밀접한 취업,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영 패밀리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고민의 결과다. '알부남'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는 뜻으로 여직원들이 지어준 것이다. 앞으로 대학생들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총련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한총련의 합법화 노력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에 위반되는 활동이 많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옳지 않다. 한총련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학생운동 단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 한나라당이 지나친 대북 강경대응을 주장해 전zew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 잘못 알려진 면이 많다. 우리 당은 북한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포용정책을 추구한다. 그러나 포용에도 분명한 원칙과 전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현 정부의 원칙없는 햇볕정책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의 3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다.

- 검찰의 병풍수사가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의 종결됐다. 그러나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듯하다.

= 자식의 병풍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나마 부정한 것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질책 발표로 늦게나마 진심이 밝혀져 다행이다. 이른바 '병풍'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남을 모략하는 정치는 정말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 스스로 대선후보로서 자신의 도덕성 항목에 점수를 매긴다면.

= 도덕성이야말로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덕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정치인을 지내면서 평생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다.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좀 쑥스럽다. 그래도 학창시절 도덕 점수는 거의 90점을 넘었는데.

## “정치 개혁이 급하다”



민주당 대선후보 노무현

-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가 관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 많은 국민들이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는데, 그런 불안감이 단일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정 후보와 우리는 정체성이 다른 만큼 국민들의 선택이 전제되어야만 단일 후보가 의미 있을 것이다.

- 집권한다면 정치개혁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 2003년까지 국회의원 중 대선거부를 도입해 정치구도를 지역구도가 아닌 정책지향의 정당체제로 개편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당이 총리 임명권을 부여해 이원집정부제적 운영을 해볼 계획이다. 또한 2007년에는 그동안의 정치개혁 성과를 토대로 대통령 중임제(4년),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 개헌을 추진하겠다.

-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른 데 대한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차별화할 생각인가.

=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너무나 보고 숲을 보지 못한 판단이라고 본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해 과감한 경제정책을 펼쳤다. 그간의 경제정책에 부작용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를 토대로 공정한 시장경제 체계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

- 노 후보는 학벌과 관련해 상징적인 인물인데, 학벌주의를 타파할 방안이 있는지.

= 대학간 경쟁력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어떤 분야는 어떤 대학이라는 식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지방대도 전국 대학교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민석 의원의 탈당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한 심정은.

= 한참 후배 되는 김민석 의원에게 뭐라고 말했겠는가. 다만 앞날이 창창한 젊은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미래를 향해 원칙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 “정풍 계속 불어올 것”



국민통합21 대선후보 정몽준

- 가능성 있는 정치인에서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 이른바 '정풍'은 월드컵 열기가 식을 즈음 거품이 꺼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긴 했어도 위력은 여전하다고 본다.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국민통합과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적합한 인물로 여기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월드컵 열기가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능력과 경험, 국가경영에 대한 비전이 더 중요한 지지요인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교육부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정 후보의 교육정책은 어떠한가.

= 교육의 자치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진정한 '교육의 지방자치화'가 목표다. 이 경우 각 지역은 더 이상 교육부의 지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더 좋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지방자치화를 위해 중앙집권적 교육시스템을 상징하는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할 대상이다. 평가기능과 정보제공 기능을 제외한 교육부의 모든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돼야 할 것이다.

- 재벌 출신 정치인으로서 재벌 개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 우선, '재벌'보다는 '대기업'이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본다. 소수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독점과 시장지배에 의한 경제효율 저하, 분배의 왜곡 등을 초래해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렸다. 이처럼 산업구조가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상호 발전해야 할 것이다.

- 국민통합21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확한 노선을 설명한다면.

= 국민통합21의 핵심과제는 우선 정쟁으로 얼룩진 낡은 정치를 넘어서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해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기성 정당과는 다르게 정치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 “진보바람은 캠퍼스부터”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 부유세 도입, 대학 평준화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 우리의 정책은 결코 급진적이지 않다.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상식적인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은 잘못된 선입관과 왜곡된 사회현실 때문이다. 일부에서 급진적이라고 지적하는 부유세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약 72%의 국민들이 찬성할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왜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란 말인가.

- 민주노동당의 대북정책은 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긍정적 성과도 남겼지만 민간 교류에 선별적 장애를 적용하고 한미일공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세워 놓았다. 남-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한 후 남북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계획이다.

- 이른바 '신비판적 지지 논쟁'이 지금도 심심치않게 제기되는데.

=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간에 '반청연대'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와 노무현 후보간의 연대는 불가하다. 나와 노무현의 갈 길은 명백히 다르다. 노 후보와 정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해서 또다시 역사의 교훈을 저버린 채 '신비판적 지지'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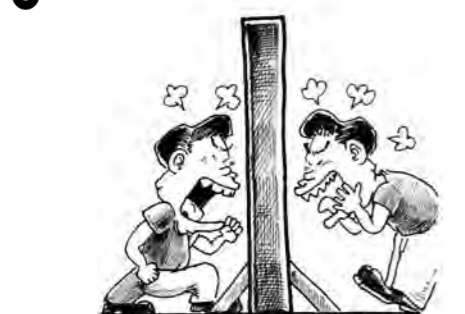
- 대학가에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 아직까지 대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당의 진보정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우리의 정책이 언론에 보도되고 합동 TV토론이 개최된다면 '권영길 바람'은 대학가에서부터 불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당 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사회에 민주노동당을 알리는 활동을 계획중이다.

-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협상이 진전이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범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한국노총의 민주사회당, 전국연합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따라서 11월 중순 경에 범진보진영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의 범추사 공투본의 기본정신은 아직도 유효하며,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 동약론 이심동체



“이미 공포했으니까 개정된거다!”

“아니다. 나중이라도 무효를 인정했으니 무효다.”

지난달 10일 경주캠에서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돼 학생회칙을 개정했는지 여부를 놓고 학생회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전체학생총회 당시 학생총회 의장은 총대의원회 대신 감사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학생회칙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공포했다. 하지만 얼마 후 총대의원회(이하 총대)가 학생총회 성

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학생총회 의장은 독단적으로 총대의 주장을 인정하고 학생총회의 안전이었던 학생회칙개정안이 무효임을 학내에 공시했다.

그러나 학생회칙 개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학생회는 이미 공포한 학생회칙에 따라 총대라는 학생회가 존재하지 않다면 계속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학생회의 학생회비는 자급이 정지된 상태이며 학생을 위한 사업은 뒷전으로 미뤄진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학 학생회들은 서로 대화를 단절한 채 자보를 이용한 비방전을 벌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회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뤄지는 학생회 선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화가 지속되자 학교측은 논의없이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학생회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회간 불화는 계속되고 있어 총학생회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 선거가 지체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선거권을 빼앗긴 학생들이다. 지금이라도 학생회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정환 기자 sjh10th@mail.dongguk.ac.kr



# 통일의지 담은 '분단시대 세상읽기'

"남북이 화해하고 손잡는 데 음악으로 '공약'의 역할을 하고 싶다" 던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 경계인의 사색



"남과 북 어느 곳에도 있지 못하는 '경계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독일 빈스터대 송두을 교수는 '친북인사'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때문에 고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윤이상과 닮아 있다."

송두을 교수가 이처럼 고국 땅에 발을 내딛을 수 없게 된 것은 '냉전적 잣대'로 바라본 그의 이력 때문이다. 70년대 초 유신체제 수립에 항거하며 민주화를 위한 해외한인단체를 조직해 대표로서 활동한 것과 이북을 몇 차례 방문하고, 통일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경계인의 사색'에서 보여지는 송두을 교수의 '분단시대 세상읽기'는 오히려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실천의지로 비춰진다. 송 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똑같은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칭적이고 등가적일 수는 없지만 상호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할 수 있다는 집합론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고 6.15 공동선언을 철학적으로 조명한다.

하위체계가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결합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일시대를 위한 성찰적 자세와 실천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다.

또한 송 교수는 1970년대 중반부터 구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비교·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내재적' 방법론을 이북 사회를 연구하는 데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렇게 송두을 교수는 공동선언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이북의 개혁·개방정책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관을 분석하면서 남북관계의 올바른 방향을 고찰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일방적인 흡수, 지배의 방식이 아닌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통일방식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친북인사 송두을'로 단정짓는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보다 "통일을 위한 송두을 교수의 활동은 적어도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부터라도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선구적 행위로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한 서울대 김세준(정치학) 교수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해외에는 송두을 교수 이외에도 군부독재에 항거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강력하게' 염원한다는 이유로 남북이 아닌 곳으로 쫓겨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2년 전에 이미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정상이 만났고, 최근에는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 개최로 남북 선수들이 단일기를 함께 흔들었다. 냉전적 잣대에 따라 친북 여부를 재단하고 이북 여부를 정하는 것이 여전히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유지나 교수의 한국영화사(5)



## 한국영화의 황금기와 그림자

세계영화사를 훑어보노라면 일종의 영화와 정치사 회상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정치사 회상이 암울할 때 오히려 그 사회의 영화 혹은 영화 산업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한국영화사에서 영화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제작이 활성화된 50년대 중반과 60년대는 제1차 황금기지만 당대 자유당 부패정권과 군사독재가 국민의 일상에 억압을 가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50년대 중반 등장한 두 편의 영화 '춘향전'과 '자유부인'은 흥행기록을 세우며 한국영화의 봄을 예고한다. 이어 등장한 영화업 면세조치는 대량제작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하여 1955년 15편에 불과했던 제작 편수가 1959년에는 108편에 달하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갑자기 늘어난 제작편수는 많은 인력을 영화업에 끌어들이고 해방이후 등장한 영화인들은 겹치기 제작과 출연으로 호황을 누리게 된다.

당대 스타였던 김지미, 최은희 같은 스타는 한 해에 10여 편 이상 주연하는 기록을 세우고 훗날 김지미 씨는 기네스북에서 최대 주연작 배우로 등록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

아시아 최대규모인 안암촬영소가 등장하고 한국영화인들, 특히 감독들은 홍콩으로 건너가 액션영화제작을 지도하는 해외진출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호황 속에서 영화인들은 자유당 우파 세력과 협조하면서 권력의 단맛을 즐기기도 한다. 이승만정권의 강경호위세력을 대표하던 일화수가 '반공 예술인단'을 조직해 그 산하에서 영화제작의 그늘에서 덕을 보고 압박을 당하기도 한다. 그 영향권에서 나온 '독립협회와 청년이승만'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자유당정권이 붕괴되고 잠시 자유의 분위기가 넘칠 때 탄생한 민간기구인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의 등장도 과거 권위적인 검열기구를 대체하면서 '오발탄'을 비롯하여 사회풍자 서민코미디가 나오는 일이 가능해 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어 불어닥친 5.16군사정권은 다시 영화산업진흥을 내세우면서 영화통제정책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증가한 제작편수는 유지되지만 점차 불어닥친 검열의 압박과 길들여진 영화인들의 주류이데올로기 편승 관습은 사회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도피적이고 그들만의 좁은 세계에 머무는 상업장르영화양상에 치중하게 된다. 결국 제1차 황금기는 TV의 대중화와 유신정권의 검열압박과 국책영화용 당국정책에 길들여지면서 가장 암울한 70년대 영화암흑기로 이어진다.

90년대 이후 다시 등장한 한국영화 르네상스론은 예외적으로 제2차 황금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최근 닦고 있는 WTO체제에서 영화 역시 일반 상품처럼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 다시 한국영화는 썰렁한 어둠 속으로 퇴행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종다양성을 담보하는 문화생산물로서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도전의 시대에 한국영화가 다시 들어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 21세기 지식인 사색

문학가 슈테판 헤름린(Stephan Hermlin)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라는 편가르기보다 자기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냐는 성실성을 더 중요시했던 시인, 슈테판 헤름린(Stephan Hermlin, 1915~1997).

그는 1915년 독일에서 태어나 16세가 되던 해에 거리에서 벌어지는 이념 논쟁을 보고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해 나치에 저항한다. 1936년 팔레스타인으로 망명, 이듬해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나치 독일이 멸망하자 동독으로 돌아와 '저녁노을'을 집필하는 등 작품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동독 최고의 영예로 불리우는 '민족상'과 '하이네상'을 여러번 수상한 헤름린은 세계 작가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국제 펜(pen) 클럽'의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 활동을 통해 정치·사상·신앙의 차별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간신같은 기회주의자보다 진정한 시민을 더 높이 평가한다"며 체제 변화에 빠르게 편승해간 지식인들을 비판한 슈테판 헤름린. 82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그는 항상 억압 받고 착취당하는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섰다.

## 국제통상학과 학술심포지엄

# FTA 대안마련 위한 논의의 장 열려

최근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얼마전 한·칠레 FTA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준비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만 보더라도 시장개방 이후 한국 농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자유 무역협정 체결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각 국이 FTA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할까?

지난 8일 문화과 덕암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8회 국제통상학과 학술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전략

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와의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칠레 FTA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정호(경영1)군은 "이번 FTA 체결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으며, 1차 산업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부족해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만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FTA 협상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1차 산업에 대한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과의 협정에 대한 신중론과 적극론의 대립을 발제한 황봉환(국제통상2) 군은 "일본과의 FTA에 대한 신중론과 적극론은 각각 논거



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본이 제시한 2003년 협상을 준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세복(국제통상4) 양은 "FTA체결은 후생증대를 가져오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산업 내 및 산업간 구조조정, 적응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점진적 개방화의 도입이 요구된다"며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 개방의 정도, 개방의 품목 등과 같은 정책 선택점의 신중한 결정과 조정능력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대회

# 원효전서 영역의 지구촌 시대적 의미와 번역상 문제점

### English Translation of complete Works of Wonhyo : It's Significance and Issues in the Global Era

국제원효학회는 원효사상의 세계화를 위하여 동국대학교와 미국 스토니 부록 뉴욕주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학술교류단체로서, 동아시아 지성사와 한국사상사,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범 불교권에서 원효를 어떻게 지리 매김할 것이며, 원효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원효학술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추진해 왔던 원효전서 영역사업의 회향을 앞에 두고, 주요 번역자들과 관련 학자들이 모여 그 동안의 번역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원효전서 영역의 지구촌 시대적 의의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국제원효학회 공동의장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스토니부록 뉴욕주립대학교 총장 Shirley S. Kenny

- 일 시 : 2002년 11월 12일(화) 오후 1:00-6:00  
2002년 11월 13일(수) 오전 9:00-12:30
- 장 소 : 동국대학교 예술극장 및 다량관 세미나실
- 주 최 : 국제원효학회 동국대학교 본부, 스토니부록 뉴욕주립대학 본부
- 후 원 :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 11월 12일(화) 예술극장

- 개회식 오후 1:00-2:00  
사 회 김홍표(동국대)  
개회사 Robert L. McGrath (Provost of SUNY at Stony Brook)  
치 사 오록원(동국학원 이사장)  
기조강연1 원효사상의 세계성과 현대성 (한국본부 : 동국대학교 송석구 총장)  
기조강연2 원효전서 영역 : 한계와 공헌 (미국본부 : 뉴욕주립대 정현 교수)  
원효전서 영역사업 보고 조성택(고려대)

- 주제발표 및 토론 오후 2:00-6:00  
제1주제 / 대승기신론소에 나타난 원효의 신앙체계 오후 2:00-3:30  
발 표 박성배(SUNY at Stony Brook)  
논 평 이광래(충남대) / 강건기(전북대) / 전해주(동국대) / 박태원(울산대) / 교영섭(동국대)  
사 회 정현(SUNY at Stony Brook)  
제2주제 /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본 한국불교문헌의 '주석' 장르 오후 4:00-5:30

- 발 표 Robert Buswell(UCLA)  
논 평 서운길(동국대) / 김희성(서강대) / 정병조(동국대) / 은정희(서울교육대) / 박진영(American University)  
사 회 심재룡(서울대)  
총 명 / 오후 5:30-6:00 Lewis Lancaster(국제원효학회 고문)

## 11월 13일(수) 다량관 세미나실

- 원효전서 번역 Workshop / 원효전서 영역의 문제점 오전 9:00-10:30  
Volume 1. 번역자 박성배(SUNY at Stony Brook)  
Volume 2. 번역자 Robert Buswell(UCLA)  
Volume 3. 번역자 Cuong Nguyen(George Mason University) / 윤원철(서울대) / Charles Muller(Toyo Gakuen University)  
Volume 4. 번역자 조성택(고려대) / Lewis Lancaster(UC at Berkeley) / 김홍표(동국대) / John McRae(Indiana University) / Pokan Chou(National Taiwan University) / 박진영(American University)  
Volume 5. 번역자 Robert Buswell(UCLA) / 조은수(University of Michigan) / Bernard Faure(Stanford University) / Richard McBride(University of Iowa) / John McRae(Indiana University) / Bruce Williams(UC at Berkeley)
- 원효전서 출판에 대하여 오전 10:30-11:00  
사 회 Robert Buswell(UCLA)
- 전체토론 / 원효학 연구의 미래 오전 11:15 - 오후 12:30  
사 회 박성배(SUNY at Stony Brook)  
토 론 Robert Buswell(UCLA) / Lewis Lancaster(UC at Berkeley) / Pokan Chou(National Taiwan University) / 권기종(동국대) / 서운길(동국대) / 김희성(서강대) / 강건기(전북대) / 정현(SUNY at Stony Brook) / 이법산(동국대) / 정병조(동국대) / 이광래(충남대) / 한보광(동국대) / 심재룡(서울대) / 은정희(서울교육대) / 김신근(동국대) / 김상현(동국대) / 허우성(경희대) / 전해주(동국대) / 김홍표(동국대) / 윤원철(서울대) / 조성택(고려대) / 박진영(동국대) / 최유진(경남대) / 박진영(American University) / 박태원(울산대) / 우재선(동국대) / 교영섭(동국대)



흔히 선거를 '축제'에 비유한다.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민주적인 행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선거는 무의미한 것이다. 특히 학생회 선거는 우리나라를 젊어질 젊은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2일부터 3일간 학생회 선거를 진행하는 동국에서 그 축제의 열기는 좀처럼 느낄 수 없다. 이에 본사 기획부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선거분위기를 살펴보고 입후보자 인터뷰를 통해 공약을 알아본다.

편집자

# 함께 하는 학생회 선거로

## 단과대 공약 들여다보기

불교대	김동국(선3) · 조우영(불교3)	정산대	서윤지(멀티미디어2)
- 공간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 학교측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불교대와 타 단과대의 중앙도서관 1층 이전에 대한 논란이 많다. 만약 불교대가 이전하게 되면 한국 불교학의 중심지인 불교대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고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학인스님과 재가학생의 화합을 위한 계획은. = 불교대는 스님과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지만 서로 마주칠 때 서먹한 것이 사실이다.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육대회, 산행, 사찰 답사 등을 통해 학인스님과 재가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 정산인을 먼저 생각하는 학생회가 의미하는 것은. = 정산대는 지금까지 학생회가 없어 학생들과 교류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올해 열었던 '정보문화축전'을 확대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도 계획하고 있다.	-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계획은. = 정산대는 특성상 컴퓨터 실습실이 많다. 그러나 학기 중 6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때문에 개방시간 연장을 위해 근로 장학생 수를 늘리도록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공계 단과대와 연대해 이공계열 전용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다.

법과대	조정호(법3)	사범대	이승호(국교3)
- 공간 및 시설 확보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 우선 이번 학기부터 법대에서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 중앙도서관 1층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공간 확보 후 전용강의실, 관례 검색실의 확대, 모의법정 신설을 요구할 계획이다.	- '교수충원'과 '참여하는 학생회'를 위한 계획은. = 현재 기초3법 교수는 헌법 1명, 민법 3명, 형법 0명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전공필수과목 교수 역시 부족한 상태다. 때문에 교수충원을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며 교수채용에 학생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참여하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모인 법과대 행사의 준비·기획 단계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과학실험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학과방 꾸미기 경연 등을 열고자 한다. 또한 각 학과 학생회장과 집행부부터 학생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양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 현재 교원채용을 할 때는 계약직교사를 많이 선발한다. 이로 인해 임용고사 선발인원이 부족해지면서 사범대 학생들이 설 교단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힘을 합쳐 이런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영대	김준호(정보관리3)	야간강좌	구자룡(영문3) · 김재훈(경영2)
- 전공수업보장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1천300 여명의 경영대 학생들과 타 단과대 복수전공학생들이 전공수업을 함께 듣기에는 개설과목이 너무 부족하다. 또한 인원제한이 있는 수업도 있어 전공과목의 부족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의 대안으로 교수충원을 통한 전공수업 확대를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다.	- '맛있는 밥 먹기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 과별로 학내식당 평가위원을 만들어 이들이 평가한 내용과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협동조합과 논의해 식단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야간강좌 경영대 임시전형을 일반전형을 부활시킨다고 했는데. = 2003학년도 경영대(야) 모집에는 취업자전형이 전부다. 때문에 취업자전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교육기회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04년 임시에는 일반전형을 부활시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새로운 전공과목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 = 야간강좌는 특히 다양한 전공과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강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사과대	김 = 김홍규(정의2) · 황재용(정의2) / 을 = 오원기(정의3) · 김종연(사회3)
▲ (갑)후보 - '과·반 학생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이하 과발특위)를 만든다고 했는데. = 현재 사과대에는 학생회 참여저조, 인기학과 편중, 공간 부족 등 문제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반·단과대 학생회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과발특위는 이들 사이의 연계강화를 통한 과·반 학생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을)후보 - 전체학생총회 성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 의사결정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반 총회에서 토론회와 논의를 거쳐 1천200 사과대학생들이 직접 발언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현안들을 안전으로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과대	김 = 김홍규(정의2) · 황재용(정의2) / 을 = 오원기(정의3) · 김종연(사회3)
- 사과대 전공강의실 책·결상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 지금 책상은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작고 불편하다. 또한 책·결상 교체는 2000년도 학원자주화 투쟁 합의안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어 내년 안으로 전면 교체하겠다.	- 자치강좌 개설에 대해. = 복수·부전공 도입이후 전공과목이 축소됐고 강의의 질도 많이 떨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공과 관련 있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사회활동기와의 만남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질 예정이다.

### 총학생회선거 입후보자 인터뷰

## 무관심의 '벽' 깨고 1만 2천의 학생회로



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팽배함에 따라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이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제35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유영빈(경영4)·이상현(야간경영3) 후보를 만나 출마공약과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이유는.  
=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학생회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학생들이 학생회에 거리감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친근감 있는 곳'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일하고 싶다.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대의체계 등 단과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총학생회라는 보다 큰 틀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어느 해보다 저조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는데.  
= 학생회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매년 다른 후보가 나오긴 하지만 선거 운동 방식에는 차이가 없어 학생들이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선거 운동원 수가 적어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거리 선거운동을 제외하면 학생들이 선거 분위기를 느낄만한 것이 없었다.

이에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유세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계획했지만 선거 시행세칙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후보를 비롯한 모든 선거운동원이 '하루에 학생 20명 만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 학생회의 가장 큰 과제는.  
=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의 대의체계가 제 모습을 갖춰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생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질은 물론 사업에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반 대표 선출에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회가 작은 단위부터 총학생회까지 '학생들의 조직'이 되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회 사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교 학생의 2%인 240명 이상의 참정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참정단은 학생들이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활동할 예정이다. 따라서 학생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동국대 학생 네트워크'를 만들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학내 모든 단체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생각이다.

- 등록금 책정 협의회(이하 등책협) 구성을 위한 계획은.  
= 등책협 구성이 새롭게 선출될 총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만큼 구성을 위해 현재 총장후보선출 선거에 입후보한 네 명의 후보에게 합의안 이행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등책협을 학생들이 등록금의 액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닌 등록금 책정 과정에 참여해 이를 논의하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면 학교측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책협이 88년부터 학생회가 끊임없이 주장해오다가 지난 학기 총학생회의 학원자주화 투쟁 과정에서 학교측과 합의 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등록금 투쟁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소나기

내가 바라는 차기 총장은



- △총장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분이길.
-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 수 있는 총장.
- △학내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우리학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 △체육관을 현대식으로... (스포츠클럽과 여가생활 등을 때 너무 좋다)
- △도서관 장서를 확충할 능력있는 총장.
- △연대처럼 기부 좀 많이 받았으면.
- △차기총장은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하시기를... △K교수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후보.
- △총장은 얼굴을 자주 보이고 학생이나 교직원, 교수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은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 △사의 이사도 좋지만 학교에 헌신할 줄 아시는 분이길.
- △학생들이 바라면 뭘 하나. 학생은 이미 3주체에서 떠난 지 오래인데.
- △총장과 부총장의 끈끈함을 보길 바란다.
- △당선됐다고 좋아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부담도 필요하지 않을까.
- △아무래도 커진 학교를 어떻게 내실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 △걸치레를 버리고 구성원들에게 헌신해야한다. 명예로 둘러싸인 자리인 만큼.
-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 △새 총장님이 경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총장은 진보적 활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많은 걸 바라진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권리는 보호받고 싶어요.
-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하세요. 급진하다 막히면 아니 같만 못하.
-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합니다. 기성인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주시길.
- △0교시, 0.5교시 조정하거나 0교시를 09:00부터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 △어쩌면 총장은 의무는 있되 권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총장님이 되세요.
- △학교가 내게 뭔가를 해주길 바라기 전에 총장님 몸소 행동하셨으면 모범적이지 않을까요.
- △법철한 이성과 따스한 감정의 소유자.
- △2003년에 바라는 총장님의 모습입니다.
- △너디 짧은 시절 민주화 운동하신 총장님 안 계십니까? 학내 민주화 운동은 옛말인가.

지난 3월 23일, 공권력이 투입되어 전원 연행되는 급박한 상황속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공무원이 무슨 상조회도 아니고 노동조합이라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오던 '공무원' 과 그 밑에 억눌려 살던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계 피복 공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고발하기 위해 시정을 찾았던 청년 전태일을 반대하며 업신여기고 결국 좌절스런 발길을 돌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공무원'이었다.

새벽녘까지 생계의 불빛을 밝혀야만 겨우 목숨 쉴 유지할 수 있는 노점상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을 여지없이 짓밟고 부취 원망의 표적이 되어 온 것이 또한 '공무원'이었다.

그동안 우리에게 공무원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권력'이었고, 공무원들 역시 권력의 언저리에서 그 같은 허위의식 속에 '철밥통'으로 살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노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과거에 대해 여전히



**논단**  
주 제 준  
전국민중연대 사무국장

공무원노조가 필요한 이유

존재하는 불신의 흔적에 더하여 정부측의 왜곡된 이데올로기 공작의 결과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50여년간 권력과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변 주는 대로 받아왔다. 국민들로부터는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었고, 정권은 정권대로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선언문)"

그렇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공무원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낮추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다.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가 노동자라면, 공무원도 노동자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듯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권력' '철밥통' '상명하달' '복지부동'의 공무원

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서기 위한 과정은 공무원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정권의 모든 정책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집행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민중수탈정책의 하위 집행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단호히 거부하기 위해서 국민을 향한 진정한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또한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의 출발이 바로 노동조합인 것이다.

정권의 국민들에 대한 억압 수탈정책은 모두 '공공'의 이름으로 집행되어 왔다. 그 집행자였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노동자 농민들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이다. '공공의 적'에서 '공공의 대변자'로.

각종 언론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이 구성되면 국가 기강이 허물어 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공무원 내부 개혁 없이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이 없으며, 공직사회의 개혁이 없다면 공무원들의 기강 또한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고.

오수길

최 옥 진 (불교문화대 국악1)

마음으로 소리를 전하는 이

“앞이 안 보일 뻔, 다를 게 없는걸요”



“오늘 아침에 퍼머머리 손질도 제가 직접 했는 걸요. 어때요?”라며 밝게 첫인사를 건네는 이가 있다. 시각장애인 1등급이라는 장애를 안고 있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최옥진(국악1) 군.

그는 스무 살 때 겪은 사고로 인해 3년 간 특수장애학교에 다니면서 삶의 또 다른 희망을 찾았다고 한다. “처음엔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특수장애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중도 사고라는 사실이 그래도 전 행운이었다고 봐요”라며 3년 간 배워 온 접자, 대금 이야기를 하나씩 늘어놓는다.

“갈대청림림의 멋을 지닌 대금으로 우리 가락을 흥겹게 연주 할 수 있다는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두 귀와 입, 손가락 그리고 마음으로 대금을 연주하게 된 거예요”라며 대금을 꺼내 붙여 보인다.

이치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젊음을 누리는 대학생들이 되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말하곤 한다. 졸업을 앞둔 내게 그 말이 지금처럼 실감나는 경우는 앞으로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학생이라는 시절은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나 또한 5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학교 안의 또 다른 학교이자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아르바이트, 그리고 이국 땅에서의 홀로서기 등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스쳐지나간다. 이러한 경험들은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이 참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하며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내게 많이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졸업논문 제출,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젊음을 발산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머지않아 나도 사회인이 되어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학 다닐 때가 좋을 때'라고, '하고 싶은 일 많이 해 보라'고... 경험을 통한 후회와 반박만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신이 겪어 후회해 본 적이 있다면 어쩌면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낙엽지는 이 계절, 젊음이라는 단어에 활기가 있을 후배들에게 뒤늦게 열심히 해보라고 전하고 싶다.

김선민 (인문대 일문4)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자

대부분 학생들은 등·하교시 정문을 이용한다. 하지만 석장동에서 자취 생활을 하는 경우엔 학생들도 많이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은 기숙사 방면에 나 있는 지름길을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은 실제로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안전 요소 투성이다.

특히 경사가 심해 비가 오거나 추위로 인해 지면이 얼어붙을 경우 매우 미끄러워져 사고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한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아 울퉁불퉁하기까지 해 학생들은 항상 긴장 속에 걸어야 한다. 그래도 학생들은 지름길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학생들의 주의를 요구할 한계가 넘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이러한 약조건에 놓여있다면 학교측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름길이 존재하는 다른 곳의 경우 위험요소를 없앤 새로운 길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있다. 본교 또한 안전한 계단길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일몰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

정화진 (법정대 법2)



동악광장

목 먹길

축하합니다

- △혜진이형! 생일 축하해요. -우석
- △이판사판! 1등한거 축하한다.
- △대희형 생일 축하해요. 우리는 형을 사랑해요. -경우, 현우, 창훈, 왕식
- △영문과 00학번 고승현! 생일 축하한다.
- △우리 지에 생일이 11월 11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 △이쁘고 깜찍한 유정이의 생일이 11월 13일입니다. 유정아 생일 축하해!
- △공대 진이가 소개팅을 했어요. 축하해주세요! -맹
- △송기야 캠퍼스커플 축하해. -맹
- △경영대02 김영상 11월 11일 생일 축하한다. -막강kcc
- △2002 중앙일보 마라톤 완주 축하합니다. -마리톤장
- △200여 증문인 진용제 하신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랑스런 증문인
- △포스터 사진 찍느라 고생한 사범대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
- △영문과 3학년 수학여행 3박4일 동안 무

수고하셨습니다

△세일이 형! 군대 잘 다녀오세요. -성진

—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

은방길

축하합니다

- △겨레사랑 13기, 우리 효진이 생일 축하해. -은선 언니
- △Happy Birthday to Solri~♡ -from Moua
- △선혜 선배의 졸업이 다가옴을 축하합니다. 꼭 취직하시어주세요! -후배님
- △우리 서로 축하해주자.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파이팅! -이유있는 남
- △항상 불안하지만 할 일을 해내는 이주영의 솔로탈출을 축하해용~ -뽕샘들이 원호
- △수고하셨습니다
- △승현아~ 네 수고가 이번 일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 △후배님들, 동아리 환경 정화하느라 수고가 많다. 내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자!!
- △재홍아! 불한당 스토커 막느라 수고했어~ 한번 쏘게. -화끈녀
- △순자야. 요즘 통 보이지 않는구나. 수고했다는 소식 들었다! 그래도 얼굴은 보여야지? -상철
- △휴학까지 하며 집안일 돕느라 애쓰다. -상철
- △드디어 입대를 하는구나. 짜아식~ 수고

하고 년 잘 해내리라 믿는다. -홍성

△주,이 지영넌!! 대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좀 더 매진하길.

열심히 합니다

- △중환이형!! 시험 열심히 봐요. -2탄
- △혜,영,진,정 열심히 하자!-실패불이 회장
- △부담갖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동이리짱
- △간호학과 4학년 언니들~ 국시 준비 열심히 하세요!
- △은진아! 유주현 외모 탈피하느라 수고가 많다. 좀더 열심히. -은진 사랑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다이어트 투쟁은 계속될지어다.

그리고...

- △정숙,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순 없을 까?
- △일단 부딪혀보자고. 젊음만으로 승부할 때잖아.
- △그래도 이제는 앞만 보고 가자. 뒤돌아볼 여유도 없다. -Now
- △불교문화대 혜진~ 넌 예뻐요~ 역시 모전여전이라니까 ...
- △겨울이 왔다. 춥고 배고픈 자취생들은 어떻게 살란말인가.
-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너희들 모두 각오해. -맨to맨 인

금주의 식단

서울캠	월(11/11)	화(11/12)	수(11/13)	목(11/14)	금(11/15)
동국관	참치김치찌개 (1300) 닭갈비볶음 (1500) 쇠고기미역국백반 (1500)	김치탕 (1500) 모듬볶음밥 (1500) 아육국백반 (1500)	비지락수제비 (1500) 오징어가스 (1500) 불고기비빔밥 (1500)	닭개장 (1500) 제육겉잎볶음 (1500) 순두부찌개백반 (1500)	콩비지찌개 (1500) 오징어덮밥 (1500) 오므라이스 (1500)
상록원	육개장 (1500) 간지장 (1500) 두부김치 (1500)	시골곰탕 (1500) 불고기덮밥 (1500) 해물된장찌개 (1500)	쟁쟁국밥 (1500) 치킨가스 (1500) 쇠고기해리우이스 (1500)	쇠고기무국백반 (1500) 튀김덮밥 (1300) 돈육푼고추찌개 (1500)	콩나물국밥 (1500) 참치콘볶음밥 (1500) 네비이나구이백반 (1500)
교직원	참치김치전골 (3000) 제육겉잎볶음 (3200)	꽃고추된장찌개 (3000) 유신술덮밥 (3200)	날치알술밥 (3000) 등심꼬치구이 (3500)	조랭이떡만두국 (3200) 골뱅이소면무침 (3200)	근대국백반 (3000) 콩치구이 (3200)

경주캠	월(11/11)	화(11/12)	수(11/13)	목(11/14)	금(11/15)
학생회관	콩나물국 (1300) 자장덮밥 (1700) 육개장 (1800) 해물볶음밥 (1800)	쇠고기미역국 (1300) 설렁탕 (1800) 참박스테이크 (1800) 해물볶음밥 (1800)	호박채운국 (1300) 순돌이국밥 (1300) 새우가스 (1800) 쇠고기덮밥 (1800)	썬배추국 (1300) 삼색볶음밥 (1700) 곰탕 (1800) 삼색볶음밥 (1700)	쇠고기김치국 (1300) 닭갈비볶음밥 (1700) 육개장 (1800) 낙지볶음덮밥 (1800)

### 달하나 천강에



조창욱  
상경대 경영학과 교수

가을단풍이 낙엽 되어 캠퍼스 이곳 저 곳을 휘둘러 다닐 때면 어김없이 대학에는 각종 선거를 알리는 공고문들이 캠퍼스의 게시판을 메우곤 한다.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총장선거, 그리고 대학에서는 학부, 단과대학, 캠퍼스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들로 인해 어느 해보다도 분주하게 전국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혼탁, 과열, 비방 등의 오명을 썼던 선거들이긴 했어도 입후보자들이 만들어 내는 선거 분위기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자못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선거에 대한 열기는 대단했다고 여겨진다. 마치 하나의 주제를 갖고 움직이는 축제처럼...

현재 우리가 바로 코앞에 두고있는 각종 선거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분명한 것은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선거주제가 우

## 선거는 캠퍼스 가을축제

리 모두의 축제에서 그들의 축제로 성격이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거와 관련된 열정은 선거에 입후보한 당사자와 선거 운동원들만의 축제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서는 선거를 의면하게까지 하였을까? 올바른 한 표의 행사라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봄의 캠퍼스 축제 주제가 낭만이라면 가을 축제 주제인 선거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동안 있어왔던 선택이라는 주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주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상야탑의 선거에 있어서 만큼은 현실성이 없는 공약,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공약을 위한 공약, 선거를 위한 공약이 되어서는 안되고 한 가지라도 내가 일 년동안 전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반신반이 이루어 내야 할 진정한 공약이 필요한 것이다. 그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가 선택한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는 확실 속에 선거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오늘의 대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은 수없이 많은 재학생과 졸업생과 미래의 학생을 위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시기에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장이라면 분명하게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대학의 발전과 대학의 역사 속에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로부터 선거가 진정한 축제로 인식되어지지 못했음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앞서 지나간 선배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답습해왔던 데에 원인이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에 동참하기를 목청 높여 외치기보다는 선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신뢰, 존경, 기대감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한해동안의 수고를 막스루 써 마감할 수 있는 진정한 참여 속의 선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손톱 손질

김민지 (예술대 문창2)

가마솥 손톱 끝이 죽었다  
네가 와 부딪힌 가슴에 남은  
영웅로 돌아간 기억을  
시간이 시린 입을 열어 자르다가  
눈물처럼 핏방울이 맺힌 것이  
살 끝인지 내 가슴인지.  
길게 타지도 못한 열 여덟 나이에  
풀 돌을 자리 마나 네 것으로 마치 못한 너는  
내게 몸을 닮았나  
꿈고 꿈어도 여전이 그림자로 남아  
몸뚱 매니큐어 아래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나는 너를 묻는다.

## 내가 만드는 깨끗한 게시판 문화

최근 학내 곳곳에서는 동아리 행사로 공연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필연인 듯 학교 게시판, 바닥 이곳 저곳에서는 각종 포스터 및 광고물이 널려져 깨끗이 치우 줄 주인을 찾고 있다.

주위에 널려진 지저분한 각종 광고물을 볼 때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그저께는 경주캠 학생회관 계단 바닥에 버려진 광고물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순간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안 치우고 뭐하는거냐고 혼자 화를 내다 이내 수그러들었다.

왜냐하면 이미 행사 기간이 지난 자보가 게시판에 붙어있자, 다음 게시판 이용자가 시기가 지난 광고물을 떼서 그냥 바닥에 내려놓은 것이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것일까?

잘못해서 미끄러진 나, 행사가 끝났음에도 광고물을 떼지 않는 주최측, 게시판을 이용하려 광고물을 바닥에 버려놓은 자. 청소 담당하는 사람... 나를 포함해 모두를 탓하고 싶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치워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해야지' 하는 선행이 앞섰더라면 말이다.

나 또한 동아리의 한 회원이지만, 행사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자보화 하는 부분에 있어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았으면 한다.

적정 수준에서의 자보화를 통해 깨끗한 게시판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윤정 (인문대 중문2)

## 대선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

대선을 앞두고 연일 TV, 신문이 떠들썩하다. 각 후보들간의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 하지만 그들의 분주한 달리기가 그 방법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을 통한 대결이 아니라 근거도 없이 쏟아내는 폭로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물론이거니와, 귀동냥으로 들은 소문으로 판단하는 유권자들의 의식문제도 크기 때문이다.

정당들이 얼마나 폭로에 재미를 붙였으면 각 대선 후보들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책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게 되었을까.

게다가 언론마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언론 매체가 오히려 각 정당에 줄서 평가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이 사실만 있고 진실은 없는 소위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버렸다.

여기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은 점점 사라져 가고 정치에 대한 불신감은 커져 갈 뿐 아니라 그들의 정쟁이 남의 일인 양 관망하고 대충 생각하게 되는 지경에 오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험담기를 자제하고 정책을 통해 경쟁해야 할 것이며 언론은 종립적인 입장에 서서 보도하고 대학생이나 교수를 포함한 유권자들도 뒤에서 비방만 하며 질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당원으로 가입해 변혁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을 후원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해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비단 정치계 뿐만 아니라 이제껏 정치개혁에 동참하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를 바로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병현 (사과대1)

## 잡상인 출입금지 ... 애정어린 관용을

오늘 늦은 오후 현금을 지출하기 위해 경주캠 학생회관 은행을 찾았다. 은행에 들렀다가 계단쪽으로 걸어나오는데 낮익은 할머니 한 분을 볼 수 있었다. 김밥을 파는 할머니를 이제 학생회관 안이 아닌 밖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할머니는 얇은 목도리를 목에 걸치셨지만 추위에 떨고 계셨다. 그래도 끊임없이 김밥을 팔아주는 학생들 때문에 할머니는 추위를 잊고 계신 듯했다.

문득 나도 모르게 할머니 앞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김밥을 사게 되었다. 김밥을 건네 받으며 할머니께 추운데 왜 여기서 김밥을 팔고 계신지 여쭙 보았다. 할머니는 이 곳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머릿속엔 순간 '학생회관 잡상인 출입금지'

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더불어 지난 봄 학생회관 1층에서 경비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내 등뒤로 조심스럽게 지나가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재생했다. 경비원이 학생회관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문자 할머니는 애써 미소만을 보이셨다.

물론 학생회관 잡상인 출입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순수한 의도로 김밥 한 줄을 팔기 위해 학생회관에 들어서려 하는 할머니를 막는다는 것은 너무 정이 메마른 세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우리 학교도 이 할머니를 잡상인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하나의 명목으로 인식하는 관용을 베풀면 어떨까.

한계원 (한외대 본1)

### 서평 - '오만과 편견'을 읽고

## 편견에서 벗어나 이해하는 마음 가져야

얼마전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았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한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그 남자의 인격을 오해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림으로써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

소설 속에서 한 사람을 오해하도록 만든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편견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고정 등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이 사람과 사람사이 그리고 사회 속에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서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편견 어린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긴 편견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일부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한 편견은 동성애자나 장애인, 고아들과 같은 일부 소수층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소외감이나 냉대, 불이익 등을 주기도 한다. 또 그들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편견에서 나온다. 그리고 편견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에서 나온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편견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러한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며 서로를 대한다면 이러한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고정과 편견을 버림으로써 서로 상처주거나 오해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필우 (생자대 식품2)

동대신문사는 여러분의 특목 뛰는 참신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대신문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학내의 주요 사건에 대한 주장, 시나 수필, 책, 영화를 보고 난 후의 감상문 등을 200자 원고지 4매 분량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서울 ☎ : 2260-3491 • 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재보 : dgpupress@dongguk.edu

###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 돋보이는 총장후보 기사 일목요연한 편집 아쉬워

단연 총장후보선거에 관한 사실과 1면의 기사가 돋보였던 지난호 동대신문은 공약 자료집이 교수회와 직원 선관위에서만 나와 구체적 공약을 몰랐던 학생들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특히 각 후보들간 불교병원 개원, 학부제, 권한의 분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

하수원 좀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도표를 만들어 이슈와 네 후보들의 공약

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편집력이 아쉬웠다 하겠다.

또한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지면 할애와 순서가 균형되고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는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다.

2주째 연속 실리고 있는 '송석구 총장의 8년 평가와 과제' 해설보도는 균형된 시각으로 구성원들에게 지난날들을 돌아켜 볼 기회를 주고 있다.

덧붙여 전 선거에 치우쳐 학생들 스스로 뽑은 지난 1년 34대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와 차기 총학생회 후보들의 공약도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일우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 불규칙한 식습관 지적 참여 이끄는 대안 부족

많은 학생들이 자취 생활 및 기타사정으로 체계적인 식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호 동대신문은 경주 문화면에서 다른 학생들이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은 적절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인식확대를 포함과 동시에 올바른 식단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점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본다.

실제 학생들이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홀로 식습관'에 쫓겨 영양 식단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데다 영양식조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을 학생들이 멀리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학생들이 식생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운동을 공감할 만한 내용 제시가 부족한 점이다.

미리 학생 의식을 설문 조사하고 학생회관 식당 영양사의 의견을 듣는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했다는 생각이다.

천명주 (법정대 행정2)

클릭!  
백수 눈에 띄는 찰리채플린  
(vision18.com.ne.kr)



몸에 꼭 끼는 상의, 활력한 바지, 작은 중절모, 우산대 지팡이, 콧수염... 이들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슬픈 광대라 불리는 '찰리채플린'이다. 그런데 그의 독특함처럼 이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백수 눈에 띄는 찰리채플린 (vision18.com.ne.kr)'이 그곳이다.

찰리채플린의 생애와 그의 작품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르는 '백수 눈에 띄는 찰리채플린'은 그의 매니아들 뿐 아니라 무성영화 혹은 흑백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주는 사이트이다.

특히 이 사이트의 가장 큰 모미는 사이트를 이루는 서체 모두가 운영자의 육필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찰리채플린에 대한 생각을 적은 낙서장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도록 한다.

먼저 '그 양반 생애'라는 코너에서는 찰리채플린의 프로필과 짧은 시절 사진 뿐 아니라 그의 여성편력과 공산주의 성향까지 엿볼 수 있다.

또한 찰리채플린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시한 '그의 친구들'에서는 아이슈타인, 칸다, 처칠 등의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 황금광 시대, 모던 타임즈 등 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한 그의 영화들에 대한 소개와 스틸사진까지 감상할 수 있는 '그 양반 작품'도 눈에 띈다.

그리고 '그 양반 사진'에서는 연기를 막 시작했을 때부터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애가 묻어나는 다양한 사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평가에 있어 의견이 분분한 찰리채플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만을 다루 아쉬운 감이 있다. 앞으로 운영자와 다른 입장의 글도 링크해 놓는다면 그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만약 얼마 전 개봉한 '위대한 독재자'를 볼 계획이 있다면 '백수의 눈에 띄는 찰리채플린'을 먼저 방문해보자. 영화를 보는 재미가 한층 더 살아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가게'

## 안국동 재활용 매장 개장해 ... 수익은 복지단체 지원금으로

길가에 찌꺼기는 작은 돌맹이 하나를 눈여겨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쓸모 없어 보이는 돌맹이라도 눈썰미 좋은 건축가에게는 빈틈에 꼭 들어맞는 마지막 한 조각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 쓸모 없는 것이 남에게는 요긴한 도구의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안국동에 개점한 '아름다운 가게(공동대표=박성준·손숙)'는 이미 사용된 적이 있는 물건들을 기증받아 판매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재활용 매장이다.

박원순(46)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시민단체 '아름다운 재단'은 지난해 5월 첫 알뜰시장 개장을 시작으로 꾸준히 알뜰시장을 열며,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착수해 지난달 아름다운 가게 1호점을 열기에 이르렀다.

곳곳에 놓인 자그마한 화분과 동그란 조형 등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매장 안에는 의류, 주방용품, 도서, CD(음반), 인테리어 소품 등 각종 잡화가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모두 기증에 의해 보충되며, 누구나 전화·인터넷·방문 접수 등을 통해 물건을 기증할 수 있다. 일단 기증받은 물건은 창고에서 분류되고 세탁, 수선되는 과정을 거쳐 새것처럼 말끔해진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뤄진다. 군데군데 손을 탄 흔적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없도록 잘 손질된 제품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묻어났다.

특히 도서 코너에는 작가 조정래 씨가 직접 친필로 사인해 기증한 '태백산맥' '아리랑' 등이 가지런히 서가에 꽂혀 눈길을 끈다. 또한 아름다운 가게는 한 물건

뿐 아니라 친환경상품, 유기농산물, 제3세계 물품 등도 판매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제품들의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가격도 무척 저렴해 아름다운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은 하루에 4,5백명 가량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의 개점 시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눈코 뜰 새 없도록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처럼 활발하게 운영되는 가게의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1차 대상은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단체 사회사업단체 등이 될 예정이다.

먼저 이곳에서 일부터 찾아왔다는 김미영(38) 씨는 "내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되니 실용적이면서 기분도 좋아진다"며 가게를 둘러본 소감을 전한다.

아름다운 가게의 이진욱(38) 간사는 "그동안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활동이 미흡했다"며 "물품이 순환되는 재활용문화가 다시 이웃을 돕는 나눔의 손길이 된다"라고 '나눔과 순환'이라는 말로 가게의 성격을 설명한다.

미국의 '굿윌'이나 영국의 '옥스팜' 등 외국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국적인 체인을 가진 구호단체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이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매장을 가진 가게가 문을 연 것은 처음이다.

과소비의 문제점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같은 때, 물자를 재활용하는 절약정신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와 같은 매장이 점차 늘어나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안국동에 위치한 기증품 판매 재활용매장 '아름다운 가게'.

## 문학단신

### 2002 동맹콘서트 주류반입금지

'진정한 인디(independent of CAPITAL)'를 표방하는 밴드들의 2002 동맹콘서트 '주류 반입금지'가 오는 15일과 22일 오후 7시 30분 잠지스페이스 미디어시어터 바락에서 열린다.

출연진 네 개 밴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객' '유정고밴드' '천지인' '이반밴드' 등 사회 모순과 억압에 맞서는 진보적 성격의 밴드 공연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천지인, 유정고밴드의 공연과 22일 가객, 이반밴드 공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문의 422-8211

### 대학생 플래시·포스터 공모전

한국기자협회(회장=이상기) 대학언론위원회가 주최하는 '깨끗한 선거와 투표참여'를 위한 대학생 플래시·포스터 공모전이 오는 20일까지 작품을 모집한다.

유뉴스가 주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공명선거 실현과 투표참여의 중요성 등의 주제로 열리며, 국내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완성도, 활용가치성 등 내용적 요소와 독창성, 심미성 등 디자인적 요소 두 가지로 나뉘며, 접수는 유뉴스에서 우편과 메일(vote@unews.co.kr)을 통해 받고 있다. 문의 734-5252

### 라이브 공연 활성화 캠페인

대중음악개혁을위한대모임을 비롯해 문화연대, 음반기획제작연대 등의 문화관련 시민단체가 오는 16일, 홍익대 앞 놀이터에서 '라이브 공연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특정장르의 시장독점이 아닌 대중음악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자 마련된 이 캠페인은 '대중음악 전문라이브공연장 건립추구 10만인 서명운동'과 포스터, 스티커 제작·홍보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3일 수원 아주대체육관과 다음달 7일 서울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홍보활동에는 각각 '이승환'과 '크라임넷'이 직접 출연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 연극판에 부는 2002 대선바람

우리네 탈춤에는 패랭이를 쓰고 채지있는 입담으로 민초들을 웃기던 '말뚝이'라는 인물이 있다. 부패한 양반을 날카롭게 꼬집는 그로 하여금 보는 이들은 통쾌한 대리만족을 맛보았을 것이다. 2002년 겨울, 연극판 말뚝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다음달 실시될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왕을 소재로, 현 정치체 '은연중'에 비판하는 연극들이 속속 무대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로와 함께 복군으로 잘 알려진 로마황제 갈리굴라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 '갈리굴라 1237호'를 들 수 있다. 다음달 1일까지 대학로 아룡구시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이 연극은 돈을 내면 100분 동안 황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갈리굴라를 배경으로 한다. 평범하던 이들이 그 곳에서 절대권력을 손아귀에 쥐는 순간, 망치로 신하를 때려죽이고 시민들의 수면시간까지 제한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는다. 이로써 관객들은 권력의 잠재된 폭력성과 파괴성을 엿보게 되고, 개인에 의해 한 나라의 흥망이 좌우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 진땀흘리기·광해유감 등 정치현실 돌아보는 계기 마련

또한 오는 13일까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극단 물리의 '광해유감'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고단한 자리에 앉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역모설에 의해 나이 어린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광종의 고뇌 어린 삶을 통해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음모와 야투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지난 10일 막을 내린 창작극 '진땀흘리기' 역시 흐름을 같이하는 연극으로 꼽을 수 있다. 장희빈의 아들이자 본래에 희생된 조선의 20대 임금 경종의 우월한 삶을 재조명해 정쟁만을 다루고 있는 현재의 우리 정치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너비벌 텐드라마 더 게이츠'는 춤과 연극의 통합 퍼포먼스는 현직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를 코믹댄스로 신랄하게 비판해 정치공연의 새로운 형식을 개척했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극평론가 김승현 씨는 "정치공연이 특수를 노린 유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정치현실을 빚는 그릴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러한 연극들은 대부분 복군이나 비운의 왕들을 소재로, 음모와 정치적 보복이 난무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극은 단순히 광종이나 정종의 한때를 회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그것을 현대적으로 풀이해 관객들이 최근의 상황까지 비교·대조하게 한다. 그렇게 횡포만을 일삼던 복군과 한없이 여러기만 하던 임금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의 본질이란 무엇이며,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역설하는 것이다. 때문에 연극을 보며 즐겁게 웃는 사이, 최근의 우리 정치현실을 살펴보는 안목까지 기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2003학년도 전과(전공변경) 공고

- 지원지역**  
2학년과정을 수료하고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F성적을 포함) 2.5 이상인 진급예정자
- 전공변경 대상전공(학과) : 원칙상 개설제한 없이 전 전공(학과)**
- 제한사항**  
가. 경찰행정학과로의 전공(학과) 변경  
나. 캠퍼스간 전공(학과) 변경  
다. 야간에서 주간 및 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공(학과) 변경  
라.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마. 입학시 전공(학과)변경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자  
바. 예체능계 지원시 실기시험 부과
- 전공(학과)변경 허용인원 :**  
전입 전공(학과) 2001학년도 입학정원의 50%(사법계열 20%)
- 시행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처 : 전입희망 전공 소속대학 교학과(야간은 야간강좌 교학과)  
2) 접수기간  
① 재학중인 3학년 진급예정자 : 2002. 11. 18(월) ~ 22(금)  
② 2003학년도 1학기 3학년 복학예정자 : 2002. 12. 9(월) ~ 11(수)  
3) 구비서류 : ① 전공(학과)변경원 ②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  
\* 예체능계 지원자는 별도의 전형료(W30,000)를 납부하여야 함.  
나. 면접 및 실기고사  
전공(학과)별 일정에 따라 2002. 12. 16(월) ~ 20(토)  
다. 전공(학과)별 합격자 결정 : 2003. 1. 24(금)  
라. 전공(학과)변경 합격자 공고 : 2003. 1. 28(화)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가. 일반계열 : 2학년 성적평점(100%) + 면접  
나. 예능계열 : 2학년 성적평점(70%) + 실기고사(30%) + 면접  
다. 사법계열 : 2학년 성적평점(90%) + 교직 인·적성검사(5%) + 면접5%  
라. 체육교육과 : 2학년 성적평점(60%) + 교직인·적성검사(5%) + 면접(5%) + 실기고사(30%)
-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2학년도 1차 전공결정 시행

- 신청대상 :** 가. 2002학년도 1학년 재학생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
- 일정 :** 가. 전공 배정 신청기간  
- 1학년 재학생 : 2002. 11. 25(월) ~ 11. 29(금)  
- 2학년 1학기 1차 복학생 : 2002. 12. 9(월) ~ 12. 11(수) (1차 복학시기)  
- 2학년 1학기 2차 복학생 : 2003. 2. 24(월) ~ 2. 26(수) (2차 복학시기)  
나. 전공배정 최종 결정 및 확정공고 :  
- 1학년 재학생 및 2학년 1학기 1차 복학생 : 2003. 2. 14(금) 한  
\* 대학별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2학년 1학기 2차 복학생 : 2003. 2. 28(금) 한
- 대학별 전공신청 요건**  

대 학	전공 신청 자격	비 고
불 교	① 평점평균 2.5이상 ② 30학점 이상 취득 ③ 대학지정공통과목 3과목 이수	99년까지의 입학자는 ①②만 요건
사회과학	① 평점평균 2.5이상 ② 30학점이상 취득	
경영	① 기초공통과목 2과목 이수 ② 기초통과과목 3과목중 2과목 이수 ③ 평점평균 2.5이상 ④ 30학점 이상 취득	99년까지의 입학자는 ③④만 요건

\* 문과대학, 이과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공과대학, 정보산업대학은 자격제한 없음.
- 대학별 전공결정 기법(시기)**  
가.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 1회(1학년 2학기말)  
나.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 2회(1학년 2학기말, 2학년 1학기말)
- 배정기준 :** 1학년 1·2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종합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
- 복학생의 전공결정** 가. 기본원칙 :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 모집단위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분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나. 배정기준 :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배정기준을 적용한다. 단, 2차 복학자의 성적이 1차 전공결정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재학생+1차복학자)의 cut-line보다 높을 경우에는 선발정원을 초과하더라도 희망 전공에 배정한다.
- 동점자 처리기준**  
가. 제1기준 :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속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나. 제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다. 제1,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 전공결정 신청방법**  
가. 1학년 재학생 : 인터넷 신청(학교 홈페이지)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  
(1)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소속 복학생 :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 소속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 미만일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이 될 수 있다.  
(2)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소속 복학생 :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 소속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 중에서 1개의 전공을 선택하여 신청한다.

## 2003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시행

- 일반 휴학**  
가. 접수일자 : 12. 12(목) ~ 16(월), 2003. 3. 3(월) ~ 5(수)  
나. 휴학 대상자 : 가점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다. 신청서류 : 보충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 가능), 일반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재됨
- 복학**  
가. 접수일자 : 12. 9(월) ~ 11(수), 2003. 2. 24(월) ~ 26(수)  
나. 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 및 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 자 및 2003년 3월말이전 전역예정자.  
다. 2003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중 2학년 복학예정자는 전공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소속대학 교학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1)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군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 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 1부  
(\*전역예정자는 제대 후 반드시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입학**  
가. 접수일자 : 12. 9(월) ~ 11(수), 2003. 2. 24(월) ~ 26(수)  
나.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칙 제5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2년 1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칙 제53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다. 재입학 허가자 등록기간 : 12. 16(월) ~ 18(수), 2003. 3. 3(월) ~ 5(수)  
\*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되며, 차순위자가 재입학 가능하게 될 유의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 1) 재입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재적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단과대학으로 상담 바랍니다.

매체비평

도서 편

새롭게 읽는 한국의 신화

“신화와 설화의 색다른 조명  
사실성 부족 아쉬워”



역사적인 사실을 문학적으로 그린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새롭게 읽는 한국의 신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많은 설화를 가지고 있다. 그 설화들이 얼마나 많고, 또 원초적이고 초자연적이나에 따라 그 민족의 유래가 유원하나함을 밝힐 수 있다. 그런만큼 전승된 설화는 그 민족이 지녀온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은 불문가지고, 이런 점에서 우리민족도 크게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설화는 신화와 전설, 그리고 민담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마리노브스키(Malinowski, 1884~1942)의 견해인데, 이에 따르면 민담은 오락적인 목적에서 이야기되어, 일종의 사교성의 표현인 까닭에 사회적 맥락이 좁은 것을 특징으로 하며, 전설은 사회적 공명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거의 역사적 회상을 나타낼 뿐 아니라 민족의 조상들의 부활생활에 깊이 관여된

다고 한다. 반면에 신화는 현실생활 속에 살아있는 원초적 현실의 서술 또는 선례에 의한 정당화로서 도덕적인 가치나 사회적 질서 그리고 신앙의 회고적 전형을 제공한다고 한다. 굳이 마리노브스키의 정의가 아니더라도 신화학·문화인류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신화는 원고시대에 있어서의 신들과 같은 신성한 존재, 영웅들의 반신성한 존재, 인간의 원형, 우주나 만물의 기원에 관한 신성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반면에 전설은 진실한 설화이고, 무대가 과거이기는 하지만 역사시대에 국한되고, 장소와 등장인물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다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본서는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온 신화만을

새롭게 조명된 것이 아니다. 모두 24편의 설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단군신화·해모수신화·주몽설화·박혁거세 설화 신화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전설에 속한다. 예를 들어보면 제6항으로부터, 22항의 선덕여왕은 신라시대 역대 왕이거나, 역대 왕과 관련이 있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이다. 그 밖에 사금강(射擊岡)이나 천사옥대(天翔玉臺), 황룡사구층탑도 시간·공간적으로 신라시대에 국한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신화 이야기라기 보다는 '설화집'의 성격에 더욱 부합된다 하겠다. 이 신화·설화집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은 삼국유사 기이편 제1에 게재되어 있는 것들이다. 주지하시라 삼국유사는 일연 선사가 우리 민족의 연원이 중국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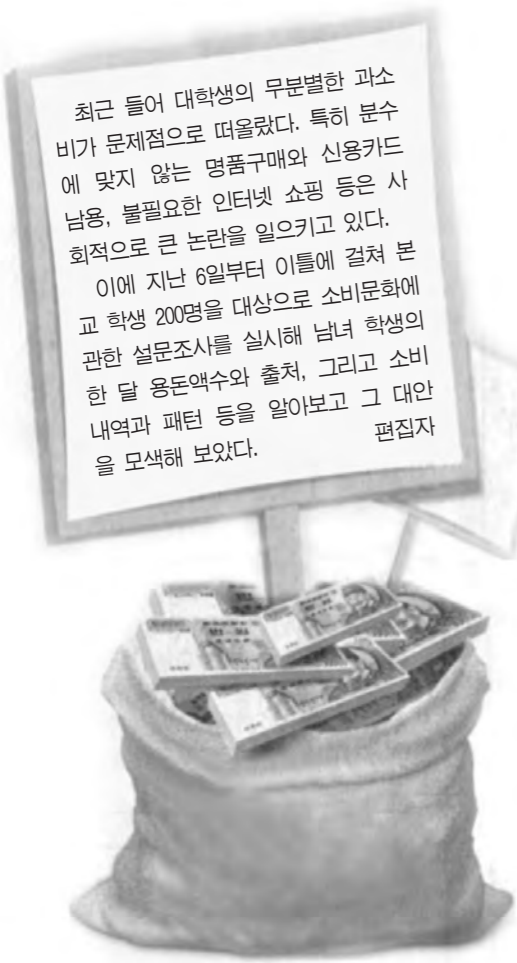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정신에서 서술한 역사서이다. 그런 만큼 민중에 전승되어 내려온 여러 문적(文籍)을 편집한 관계로 때로는 비과학적이고 난해한 내용도 있으며, 황당하기까지 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삼국유사를 가까이 하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이같은 부분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상대의 신라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걷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본서의 뒤를 이어 고구려·백제의 설화가 현재적 시각에서 독자들에게 가까이 갈 날을 기대하게 해준다.

임영정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부~자 되세요’부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까지 올해 본격적으로 전파를 타기 시작한 신용카드 광고는 하나같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강력 파워를 과시했다. 이에 반해 정부와 각종 매스컴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며 20대 대학생들의 소비문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각 시민단체나 금융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특별한 계획없이 소비생활을 하고 있으며, 두 명에 한 명 꼴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위험수위에 다달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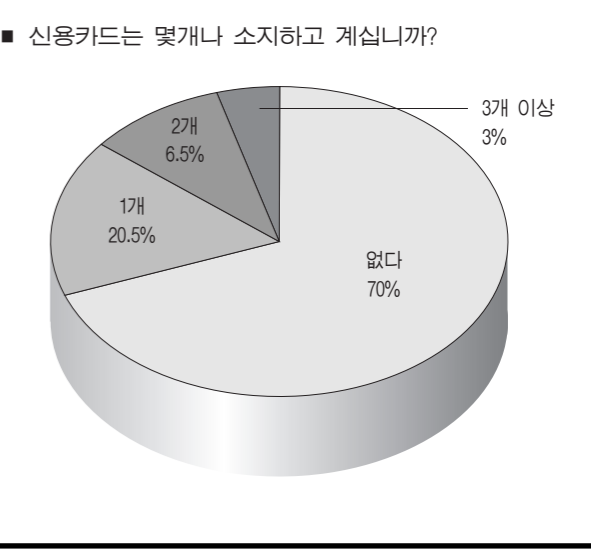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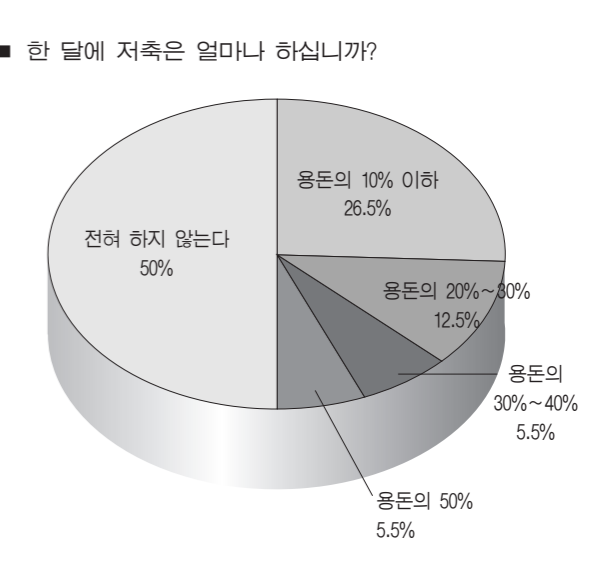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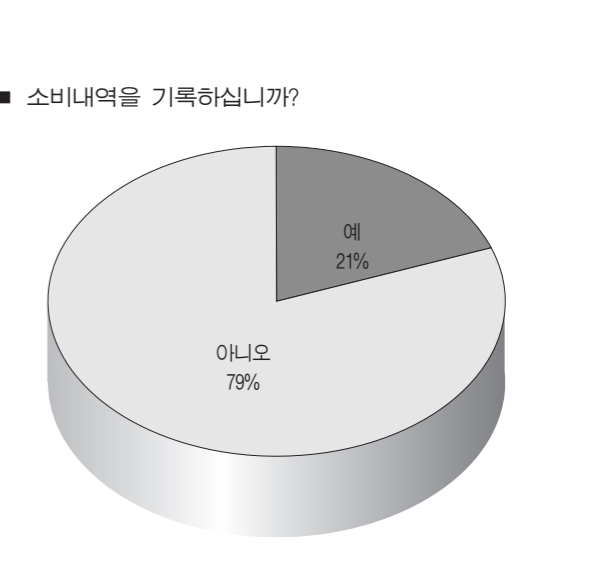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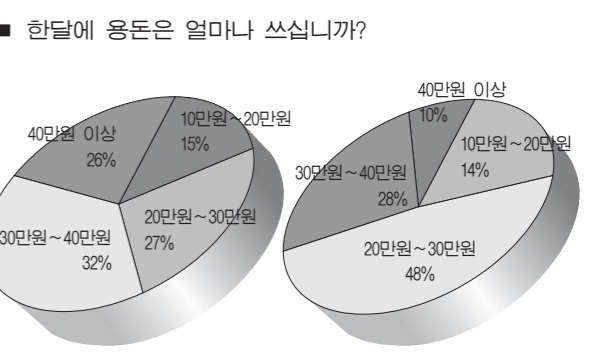
**본교 학생들은 ...**  
그렇다면 본교 학생들의 소비문화는 어떨까. 설문조사 결과, 본교 학생들은 한 달 단위로 평균 여성이 20~30만원대, 남성이 30~40만원대의 용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은 주로 부모님에게 받고 있었으며 약 25%정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충당하고 있었다. 또한 용돈의 절반 가량을 식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여성은 의류 및 잡화구입비로, 남성은 유희비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과외, 서빙 등을 통해 받는 아르바이트비는 용돈으로 생

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동적 소비 인정’ 61%**  
주목할 점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소비경향이 충동적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내역을 기록하느냐는 질문에는 28%의 여성과 11%의 남성만이 응답했으며 소비내역 기록 기간 역시 한 달에 한번(52.5%), 일주일에 한번(19.5%), 이틀에 한번(15%), 매일(14%) 순으로 나타나 사실상 소비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드러냈다. 이는 학생들이 현재의 소비경향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지만 그것을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뜻한다. 즉,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소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의 50%가 한 달에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용돈의 10% 이하를 저축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저축에 대한 인식 역시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저축의 이유를 고가의 물품을 사기 위해서(14.5%)보다 미래에 대한 대비(39%), 출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40.5%) 라고 밝혀 비록 계획적이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극단적인 소비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10명 중 7명 ‘카드 없다’**  
뿐만 아니라 본교의 경우,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29%에 불과해 언론보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3개 이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비율도 단 3%에 그쳤으며,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실제 소비생활에서는 카드보다는 현금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MCA 시민중계실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이런 소비문화에 대해 “돈을 직접 벌지 않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학생 소비문화를 비판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흔히들 대학생을 예비직장인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대학생의 소비문화를 비단 몇몇 학생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것처럼 대학시절의 소비태도는 졸업 후 사회생활에까지 그대로 연결돼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행을 한 신용카드 광고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능력있는 사람들의 소비라는 점.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계획적인 소비생활이 바탕이 돼야 비로소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설문조사 결과



커뮤니티 ‘근검절약’ 운영자 유지나 씨를 만나

## “절약은 인색 아닌 바람직한 소비의 하나”

용돈기입장·부자되는 법 등 게시판 통해 회원들간 상담 및 비법 공유



요즘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남용과 무분별한 소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올바른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들의 터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근검절약(cafes.daum.net/naukki0)’이라는 커뮤니티. 이에 커뮤니티 운영자 유지나(22) 씨를 만나 활동내용과 절약을 위한 실천활동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계기는.  
= 대학 졸업반이었던 지난 2월 ‘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20대 소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요즘 20대들의 소비생활을 지적했다. 하지만 저자가 일본인인 까닭에 지적하고 있는 소비문화나 제시한 절약방법이 우리나라 실정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절약에 관한 사이트를 검색해 봤지만 수백개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와는 대조적으로 거의 정무한 상태였다. 이에 직접 20대의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에 참여하고자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다.  
-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 활동 공간이 되는 게시판은 용돈기입장, 부자되는 법, 적금정보 등 절약생활에 관한 내용을 주를 이룬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게시판은 용돈기입장으로 회원들이 자신의 소비 내역을 공개하면 다른 회원들이 충고와 격려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다. 특히 8천여 명에 이르는 회원이 대부분 20대라는 점 덕분에 공간대 형성이 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무기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익명게시판은 카드빚, 아르바이트 급여 문제 등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카드빚의 경우 명품구매 등을 이유로 몇 천만원씩 빚을 진 회원들을 보면서 그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  
- 절약에 관한 비법이 있다면.  
= 먼저 용돈기입장 기록의 습관을 권하고 싶다. 용돈기입장을 기록하면 훨씬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하우를 공개한다면 소비계획에 따라 그 액수를 용돈기입장에 붙여놓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전을 모아 만드는 ‘동전통장’이다. 이 방법은 인식에 비해 비교적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절약방법을 실천하든지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절약은 무조건 돈을 쓰지 않는 ‘인

색’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더불어 그것은 장피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방법의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 중고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벼룩시장’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오프라인상의 모임도 의미있게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제법 목돈이 된 동전통장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울 계획을 갖고 있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 메아리

### 수능신비극

▲총 제작비만 100억원, 제작기간 3년, 초특급 블록버스터... 개봉하기 전부터 갖가지 수식어를 달고 성공이나, 실패냐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내나라라는 영화 주간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등장했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손익분기점 300만에 훨씬 못 미친 13만 관객에 그쳤으니 성냥팔이 소녀의 재앙이라 불리는 것도 당연지사.  
▲얼마 전 치러진 수능시험을 두고 말

들이 많다. 불수능, 물수능에 이어 교육부가 또 한번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암기식 교육환경의 폐해라는 등의 맹렬한 비난이 대부분이다. 예상을 뒤엎고 낮은 점수가 나오자 수험생들에게는 실패한 이해한 2세대, 단군 이래 최악의 학력세대라는 꼬리표가 붙여졌다. 여기에 언론의 잘못된 예측보도를 보고 자살한 한 학생과 패착 교육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대선 후보도 가세해 다시금 교육문제

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흥행에 실패한 대작들은 주요 스태프가 자주 바뀌고 계획성 없는 촬영 일정 때문에 제작비가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 내용성은 떨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원래 블록버스터 영화가 최대한 많은 관객의 입맛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질적 내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영화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총 교육비 예측불가, 공부기간 12년 이상, 1년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초특급 블록버스터... 매년 수능시험날이 되면 한국 사회에서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을 늦추고 경찰의 주요 업무가 바뀌고 심지어 비행기 이착륙 시간이 미뤄지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전국민이 함께 하는 이 블록버스터급 ‘쇼’는 주요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고 계획성 없이 진행되며

내용성이 떨어진다든 점에서 실패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닮았다. 이제 난이도 실패나 학력저하 등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단 한번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수능시험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수능중심 교육의 재앙’은 먼 얘기가 아니다.  
손산민 편집장  
neo9292@dongguk.edu

동아리 탐방 - 경주캠 칵테일 동아리 'DRINKS'

# “열정과 예술혼 담아 흔들어 주세요”

## 축제 때 미니칵테일쇼 선보여 ...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길

알코올 음료에 과즙류, 향료, 탄산 음료 등 부재료를 혼합해 만든 음료를 예술로서 감상하는 이들이 있다. 음료의 맛, 향기, 색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이들은 바로 칵테일동아리 DRINKS이다.

올해 창설된 DRINKS는 알코올 음료를 제대로 알아 올바른 음주문화를 즐기기 위한 동아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들 한 번쯤은 맥주, 소주에 맡겨 놔두면 본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습관이에요”라며 정지영(관경3) 회장은 잘못된 음주문화를 지적한다.

그는 “맛과 향을 경쾌하게 믹스한 칵테일을 통해 알코올 음료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DRINKS는 현재 2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론수업, 조주 실습, 현장견학 등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보합’이라는 전통음식점을 방문해 20여 가지의



칵테일을 만들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

우리 전통 민속주를 시음했다고 한다. 이에 한 회원은 “서양 술에 치우쳐 소홀히 할 뻔했던 전통 민속주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한다.

DRINKS 회원들은 실내에서 이론, 실습으로 접해 오던 칵테일을 지난 축제 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미니 칵테일 바’ 행사를 가졌다. 행사 당일 밤에는 플래어 쇼를 관객들에게 제공해 많

은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호응도를 높이 평가했다. 한 회원은 “무알코올, 알코올 칵테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칵테일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축제 때를 회상하기도 했다.

DRINKS 회원들은 최근 축제 때만큼 많은 이들에게 칵테일, 그리고 알코올 음료문화에 대해 알릴 기회가 없어 아쉬워한다.

왜냐하면 이론, 실습, 견학을 통해 익힌 알코올 음료 지식을 바탕으로 DRINKS 회원들 대부분이 11월 말에 있을 조주 기능사 자격증 취득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7분 동안 세가지 칵테일을 만들 줄 아는 자격증을 가진 DRINKS 회원들이 칵테일이 선사하는 맛, 향기, 색채를 동대인에게 모두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이지현 기자  
easy01@dongguk.edu



## 취업정보

# 면접전형과 인성적성검사

“면접에서 어렵게 떨어졌다는 말보다 면접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얘기가 오늘의 취업난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취업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전형과 인성적성검사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와 대응요령을 살펴본다.

첫째, 집단토론과 다자간 면접. 보통 면접대상자가 3~10명 정도이고, 면접관은 2명 이상이며 많을 경우 면접대상자와 동수일 경우도 있다. 집단토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론 주제는 찬반을 나눠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이 제시된다. 찬반 어느 쪽이든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일관된 논리를 펴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편향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전문분야라고 너무 자기과시를 해서 안 된다. 다자간 면접일 경우는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답변만을 생각하고 있어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답변 내용

과 그에 대한 면접관들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자간 면접일 경우 적절한 질문은 면접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알고 있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집단토론이나 다자간 면접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자신이 다수에 포함될 일부를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면접형태에서 면접관들이 원하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조직에 대한 적응력,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자세 등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둘째, 프리젠테이션 또는 개별면접. 다자간 면접과는 달리 개개인의 성격, 인성,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이므로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야 한다. 프리젠테이션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발표 속도, 용어의 선택, 적절한 몸짓(Gesture)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개별

면접의 경우 대답은 간단 명료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면접관 질문에 대해 시선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여야 한다.

셋째, 인성적성 검사. 의외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이다. 명확한 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은 편안히 보면 된다고 하고 정말로 당사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아직 일반적으로 인성적성검사가 적·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많이 이용되고, 채용전형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관련서적과 지인, 선배 등의 조언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다. 다만, 인성적성검사는 취업시즌에 압박하여 준비하는 것보다 자신의 성격과 적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1,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인성적성검사를 받아보거나 인성적성검사 관련 서적을 읽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 제공 = 취업지원팀

## 35mm 세상



50년전, 이 땅 100만이 넘는 민간인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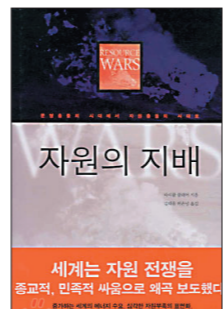
아버지들, 누이를 잃고도 유족들은 억울한 죽음을 호소할 곳 없이 그렇게 5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슬픈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날 그 날이 빨리왔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 7일 민간인학살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엠태규 사진부장  
snail11@dongguk.edu

### 자원의 지배



세계 각국의 안보정책을 '자원'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본 책. 저자는 겉보기에 종교적, 민족적 싸움으로 보이는 세계 각지의 분쟁 이면에 숨은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와 심각한 자원부족 등을 조망한다. 풍부한 자료를 통해 각 지역의 분쟁과 각국의 안보전략 핵심에 자원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실증해 보인다.

마이클 클레어 저/ 세종서적/ 1만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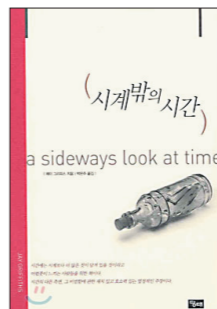
###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이 책은 현대철학의 지평을 연 3대 사상가 니체, 프로이트, 맑스에서 출발해 이들의 현대 프랑스 철학의 갈래를 탐험한 연구서다. 저자는 세 철학적 거두가 서양 철학을 의심하고 해체하는 방식을 되살림으로써, 동서양의 철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김상환 저/ 창작과비평사/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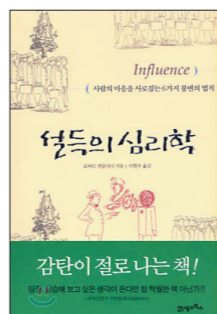
### 세계 밖의 시간



이 책은 시간에는 세계보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또한 여성의 시간은 남성의 시간과 어떻게 다른지 세밀하게 고찰한다.

데이비드 실드스 저/ 대담/ 2만 3천원.

### 설득의 심리학(개정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을 통해 제시하는 설득의 세계를 보여주는 책. 이 개정판에는 그 동안 꾸준히 발표되었던 설득과 순응과 변화에 대한 최신의 연구 결과들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독자들의 반응까지도 추가했다.

로버트 치알디니 저/ 21세기북스/ 1만 2천원.

### 거미줄에 걸린 웹



현명한 네티즌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침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과 수사학을 전공한 저자는 사이버리터러시(Cyber literacy)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인터넷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대해 비판적이고 지적인 자세를 견지하자고 주장한다.

로라 J. 구르크 저/ 들녘/ 1만 2천원.

### 나는 평화를 희망한다



독일 통일, 세계 소수 민족의 인권을 위한 투쟁 등을 이끌며 독일의 역사를 새로 쓴 20세기의 대표적인 정치가 페트라 켈리의 전기. 이 책은 지난 1992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에도 영원한 녹색 신화로 남아있는 페트라 켈리의 삶과 죽음에 관한 기록을 담았다.

새라 파킨 저/ 양문/ 9천 8백원.